MAY 1 2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31 1983년 5월1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May 12,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밀러재무장관,「온」주 예산안 발표

의료보험료 5% 인상

18개월시한부의 5% 부가소득세신설

◆새로운 예산안을 읽고 있는 프랭크·밀러 재무장관

온타리오 정부는 10일 하오 장기적인 불황에서 서서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실업대책을 위해 납세자에게 18개월간의 잠정 5% 부가소득세를 신설하는 외에 담배세, 주류세를 인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프랭크·밀러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주 글로브·앤드·메일지에 의해 예산안이 사전누설된데 대한 책임으로 자신이 사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밀러장관은 이날 하오 4시30분 주의회에 등단, 지난주 누설된 예산안 일부에 납세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서두를 꺼낸 다음 250억달러 예산안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경기활성화를 꾀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3억5천8백만달러 규모의 세금감면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납세자는 18개월시한부의 5% 부가소득세를 신규로 지불해야하며 의료보험가입자는 OHIP료를 5%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주류세와 담배세가 인상된다.

밀러장관은 또한 납세자에 대한 보너스로 새로 구입되는 가구및 가정용품에 대해서는 소매판매세를 90일 시한부로 면세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조치는 소비지출을 자극시키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번 회기중 온타리오의 실업율을 11.7%로 작년 회기보다 높게 예상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실업자들을 위해 예산안에는 무엇을 반영시켰느냐는 질문에 밀러장관은 "이들은 기업활성화를 위한 혜택의 수혜자들이 될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측은 이번 예산안은 직접적인 직업창출을 위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극빈자와 무직자를 위한 구제책이 없다고 비난했다.

신민당당수인 밥·뢰씨는 밀러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핵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임할것을 주장했으며 또한 자유당 재정평론가인 패트릭·레이드씨는 이번예산안으로서는 직장창출을 자극시키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일반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조치와 나쁜 조치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리한 조치

5월11일부터 8월8일까지 주요 가정용품 판매세 7%가 보류된다. 면세품목은 개스레인지, 냉장고, 냉동기(Freezer), 설겆이기계(Dishwasher), 세탁기(Washer)및 건조기(Dryer)등이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마이크로오븐및 재래식 오븐이다.

▲

8월9일 이전에 구매, 11월7일 이전에 배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도 7%의 판매세가 면제된다. 해당품목은 베드, 매트리스, 책꽂이, 부페(buffet), 체스트(chest), 드레서(dresser), 캐비넷, 소파, 테이블, 체어, 드레이프(drape), 브라인드(blind), 카페트등이다. TV 셋, 스테레오, 라디오, 사용한 가구, 피아노, 파이어플레이스(fireplace)등은 제외된다.

▲

5월11일부터 유원지 입장세 면세점이 $3.50에서 $4로 인상된다.

▲

현재 56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캐나디언·메이플·립(Canadian Maple Leaf)금화에 대한 판매세가 없어진다. 따라서 금화를 구매하면 39달러의 이익을 보게 된다.

불리한 조치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이 2,178달러이상인 납세자는 "사회봉사유지세(Social services maintenance tax)라고 불리우는 5%의 부가소득세(income tax surcharge)를 84년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

6월1일부터 OHIP료가 5% 인상된다. 독신봉급자는 월27달러에서 28.35달러로, 가족은 54달러에서 56.7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

5월24일부로 소매상에서 구입한 주류에 대한 소매판매세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그러나 식당이나 라운지에서 구입할때는 계속 10%만 물면 된다.

따라서 일반주류(liquor)가격은 병당 20센트, 대중용포도주는 10센트 오른다. 또한 맥주는 12병들이 한상자당 15센트 인상된다.

▲

담배의 경우 현재 7%로 되어 있는 판매세가 계속됨과 동시에 도매세가 40%에서 45%로 인상된다. 따라서 5월11일부터 25개피짜리 한갑이 19센트, 20개피짜리 한갑이 15센트씩 각각 오른다.

연초판매세인상은 궐연(cigarettes)외에 시가, 커트·토바코(cut tobacco), 입담배(chewing tobacco)와 코담배(snuff)에도 적용된다. (2면에 계속)

〈오늘의 시세〉

CN$1.00 = US81.65센트
금(런던) = $543.51
은(토론토) = $16.14/oz.

피납승무원 95명 귀국

북경공항당국, 김포에 전문보내

(서울11일=연합)

중공은 102명의 탑승자중 95명을 태우고 귀국한 중공의 특별기가 상해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전보로 알려왔다.

북경의 공항당국은 10일하오 7시반 김포국제공항에 보낸 전문을 통해 이날 3시44분 김포를 떠난 중공특별기 보잉707기가 하오 5시32분 상해공항에 안착했음을 알려왔다고 공항당국이 전했다.

10일 양국간의 직접교신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양국관계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10일 직접교신이 있기전 한국과 중공은 납치사건이 있은후 동경을 통해 30여차례 전문을 교환한 바 있다.

"직접협상 획기적"

공외무차관 언급

공로명 외무차관은 11일 납치비행기 문제를 둘러싼 한국·중공간의 직접협상이 이루어진것은 양국관계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양국은 비상사태에 대비, 쌍무협상 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차관은 이같은 비상사태 대비채널은 양국관계개선의 기초작업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번같은 사태에서 중공이 한국과 직접협상대신 제3국을 통해 협상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포행이륙 지연

10일 김포로 향하려던 피납 중공기의 이륙이 안전문제로 2~3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 춘천시장은 11일 인근주민들의 대피등 안전조치가 철저히 취해질 때까지 비상이륙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활주로가 안전이륙을 위해 충분한 길이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산항 입항

캐나다 해군함정

(부산11일=연합) 3척의 캐나다 해군함정과 약1,000명의 장병이 11일 오전 항도부산에 입항했다.

R.E. 죠지함장의 지휘아래 기함을 비롯한 구축함, 유조선을 타고 이곳에 도착한 장병들은 UN묘지의 6.25동란시 참전전사한 캐나다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캐나다국방참모총장 램지·와이터대장도 배석했다.

모국연예인 토론토 도착!

13일(금) 저녁7시30분부터 토론토대학교 콘보케이숀·홀에서 기대리에 막을 올리는「모국연예인초청쇼」에 참가할 10명의 정상급 연예인이 11일 오전 11시43분 토론토국제공항에 예정대로 도착했다.

8일 워싱톤에서 북미 첫공연을 마치고 이날 도착한 연예인 일행은 14일 뉴욕으로 떠나기까지 안도어(Anndore)호텔에 묵게 된다.

(사진 오른쪽으로부터 2번째가 가수 이은하, 3번째가 코메디언 이주일, 6번째가 가수 김연자, 7번째 가수 이용 .)

성인잡지규제법 최종통과

취급상점은 연35달러의 면허세를 내야

메트로·토론토의회는 10일 성인용 출판물 판매전시법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 4주간 계속된 동법에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확정된 법에 따르면 성인용 출판물 취급상점들은 연 35달러의 면허료를 내야하며 성인출판물은 최소 바닥에서 1.5m이상, 제목을 제외한 표지를 가려 전시해야 한다.

약 2,500명으로 추산되는 메트로내 상점주들은 이날 통과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ROLEX
한국화장품 대리점
교포홍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대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가게를 경영하는 소매상 여러분께

나날이 가게 속에서 낮과 밤을 보내고 계시는 경영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합상사는 작년 도매상으로 출발하여, 품질이 보장된 좋은 상품을 보다 싼 가격으로, 친절을 모토로 봉사해 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경영방식의 착오로 한때 여러 구구한 뒷소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과 정성, 주위의 고마운 격려를 힘입어, 지금은 완전히 원상복구하였으며, 과거의 산 경험을 살려 소매상 경영주 여러분께 배전의 봉사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거듭 애용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대표 심현모 올림

※특히 캔디류, 그로서리가격은 다른 어느 외국도매상보다 자신을 갖고 싸게 팔고 있읍니다.

27 RANGEMORE RD.
TORONTO, ONT. M8Z 5H8
251-6578/9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United Konadian LTD.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RD. TORONTO Phone: 251-6578 · 251-657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미이민법안 하원법사위통과

사면대상 82년1월1일 기준으로

(시카고지사)미하원법사위원회는 5일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을 금지시키고 82년1월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면해주는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법 개정안은 상원 법사위에서도 이미 하원과 비슷한 안이 통과되었는데 1주일안에 전체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여러가지 장애물이 남아있으나 이번 회기안에 완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이민법 개정안을 29대 9로 승인하기에 앞서 경영주가 새로 취업을 시킬 경우 합법외국인이라는 기록을 반드시 보존토록하는 종전안을 수정, 불법체류 외국인임이 밝혀진 경우에만 기록을 보존토록 완화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의도적으로 고용한 경영주는 처음일 경우 경고에 처분하며 두번째는 벌금 1천달러, 세번째는 2천달러, 그리고 계속적인 위반시에는 형사범으로 취급, 최고 벌금3천달러와 징역1년을 부과하게 된다.

여성에게 보다많은 고용기회를!

에롤라 여성지위장관 역설

연방정부는 기업들이 보다 많은 여성을 고용하고 그들의 승진을 장려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쥬디·에롤라 여성지위장관은 지금까지 취해온 자발적인 "긍정적 행동"(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어도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에게만이라도 여성고용및 승진장려를 의무적으로 만들때가 됐다고 밝혔다.

에롤라장관은 또 "같은 성격의 일에 같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동등권 개념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긍정적 행동"이란 비록 남성들이 더 자질을 갖춘 직업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기업들의 남성고용율이 훨씬 높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고용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1개월뒤쯤 공개될 여성고용및 승진 장려계획에 따르면 은행, 국영기관, 철도회사등 연방정부 관할기관에 "긍정적 행동" 실천을 의무화, 여성차별을 없앤다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C채널 파산직면

5월말 넘기기 어려울듯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주로 취급하는 페이·TV C채널이 운영난에 빠져 5월말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10일 에드가·코완 C채널회장은 토론토·도미니언은행이 C채널회사에 제공한 350만 달러를 회수해갈 경우 누군가 새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채널 시청가족을 2만5천내지 2만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원래 6~7만명이 시청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피아노독주회

김진숙씨

김진숙(25)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5일(일) 7시반 트리니티·세인트·폴 연합교회(427 Bloor St. W×Spadina)에서 열린다.

연주곡목은 바하의 Prelude & Fugue in Gminor, 베토벤의 작품 57번 〈열정〉소나타 Fiminor, 쇼팡, 드비시등이며, 캐나다 작곡가인 Pentland의 작품등도 곁들인다.

현재 영국 런던 트리니티·칼리지 오브뮤직 아트 디플로마과정을 밟고 있는 김진숙씨는 오정주, Parr교수, 마가렛·파슨즈·풀교수에게서 사사했으며, 최근에는 로열·콘서버토리·체임버·콰이어 반주를 맡고 있다.

오는6월 엔지니어인 윤인우씨와 결혼, 미국 캔리스시티에서 음악공부를 계속할 예정이며, Y합창단, 한인천주교회 반주자등을 지냈다.

입장료는 $3.

◆김진숙씨

120년전역사 재연

블랙·크릭·빌리지

블랙·크릭·빌리지는 오는 14일부터 6월5일까지 세계박물관의 날을 기념하는 「1860년대의 박물관」이라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20년전의 역사를 재연한다.

구내 타운홀에 설치될 이번 특별전에는 각종 조류, 살쾡이, 물개, 두더지등의 박제류, 기형동물박제등이 선보이며 고대원주민들과 인디안의 생태, 자연도전등을 견학할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릴과 기대가운데 관람할 수 있으며 개장 시간은 평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또한 5월28,29양일과 6월4,5양일은 모직제조(wool-making)과정도 곁들인다.

빌리지의 위치는 토론토 북서쪽 제인 스트릿(Jane St.)과 스틸스애비뉴(Steeles Ave.)에 접해있으며 문의전화 661-6600 교환 262로 하면 된다.

교민동정

▲장순채(한인회장): 카라반준비관계로 모국을 방문후 10일(화) 무사히 돌아왔다.

8일간 체류중 금년 카라반행사에 출품할 한국공예품및 전시품목 45개 종목이상의 물품을 대량 구입선적하느라고 눈코뜰새 없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이한영(거구장 대표)= 과거 수년간 운영난및 법적문제로 골치를 앓던 거구장이 지난 29일자로 이씨 명의로 완전히 넘어가고 법적문제도 깨끗이 해결됐다고. 그동안 몇번인가 그만두려 했던 사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대들어 보겠으며 특히 음식에 중점을 두어 명실공히 식당다운 식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펼쳤다.

964-6834(B)
226 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金聖鍾 작

萬5의 사나이 <231>

노파의 증언 ②

金형사 女人의표정보고 즉각 눈치채…

김형사는 그럴리 없다는듯 손을 휘휘 내저었다.

「아니야. 그놈이 여기에 뭐하러 나타났겠어?」

「그놈이 X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수 있읍니다.」

「어떤증거?」

「놈의 필체를 본부에 보냈읍니다. 놈은 김형사님을 입원시키면서 자필로 입원카드를 작성했읍니다. 환자 이름을 김대식으로하고 자신을 보호자로내세웠는데 자신의 이름은 김철이라고 했읍니다. 본부에 확보되어있는 놈의 필체와 이번것을 대조해보면 놈이 X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집니다.」

X는 며칠전 서울에 잠입했을때 변두리의 삼류호텔에투숙하면서 두장의 숙박카드에 필체를 남겨두었었는데, 하나는 중국인 황왕치라고 적은것이었고 또 하나는 김동화라고 기입한것이었다. 그가 서울에 잠입한것을 확인한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경찰이 덮쳤을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난뒤였다.

「만일 놈이 X라면 여기엔 뭐왔지?」

「모세의 연고지가 아닙니까?」

「모세와 X와무슨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제부터 그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물론 X가 틀림없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하는 말입니다만…」

「만일 X라면 놈이배낭속에가지고 있던것은…?」

「헤로인이겠죠.」

그말에 김형사는 신음을 토했다.

그때 간호원이 들어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일렀다.

마형사는 뛰어나가 전화를 받았다.

「본부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두개의 필체가 일치한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답니다.」

마인은 하마터면 수화기를 떨어뜨릴뻔했다.

朴 男 그림

김형사는 마인의 표정을 보고 금방 눈치를 챘다.

「자네 추리가 맞았나?」

「네, 맞았읍니다.」

마인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축하해야겠군. 자넨 역시 우수한 수사관이야. 난 늙었어.」

「별말씀을…」

「앙지마을로 가봐. 놈이 그마을에서 나오다가 나를 만났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네, 그렇지않아도 가볼 생각입니다.」

「빌어먹을. 그놈인줄 알았으면 해볼건데…」

김형사는 부서진 턱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원통해했지만 그는 더 이상이 사건에 참가할 수가 없는 몸이었다.

「조심하라구.」

그는 앙지마을로 떠나는 마인을 향해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졌다.

「마음 놓으시고 몸조리나 잘 하십시오.」

병원을 나선 마인은 그곳 주재형사 한 명만을 데리고 앙지마을로향했다.

〈1면에서 계속〉

예산안 해설

OHIP로 인상

6월1일부터 독신자의 OHIP 보험료는 월 28.35달러로 1.35달러씩, 가족당 보험료는 월 $56.70으로 2.70달러씩 오른다.

보험료가 올라도 금년도 전체 보건예산 75억2천만달러중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은 18.4%밖에 안된다. 작년에는 19%였다.

보건예산중 39억달러가 병원에, 21억달러가 의사들에 지출된다.

캐나다에서 주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는 3개주중의 하나인 온타리오주는 이번 인상으로 가장 의료보험이 비싼 주가 되었다.

브리티쉬·콜럼비아는 개인 월 15달러, 가족 30달러이며, 알버타는 개인 9.50달러에 가족 19달러이다.

연금수혜자와 웰페어등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 연소득 3천달러이하의 독신이나 과세대상 소득이 3천5백달러이하의 가족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

또한 연소득 4천5달러 이하의 독신자나 과세대상소득이 연 5천5백달러 이하의 가족은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소득세 신설

온타리오 주민들은 실직자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적어도 18개월간 5%의 시한부 소득세를 납세하게 됐다.

프랭크·밀러재무장관은 온타리오 역사상 처음인 부가세가 현재 정부의 예상대로 18개월뒤에 끝나게 될런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7월부터 84년말까지 5% 부가세제로 거두어지는 4억5,500만달러는 직장창출및 실업자구제계획에 충당된다고 말했다.

5% 부가세는 주민들에게는 평균 1주 1.40달러, 연간 72달러80센트씩이 월급액에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소득세제는 1차대전중인 1917년 연방정부가 전쟁경비 충당을 위해 도입한 것이 시초이다.

밀러장관은 판매세를 인상, 주민들에 소비를 줄이게 하는 요인을 만들기 보다 부가소득세를 인상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가 줄어들면 전체 경기저조, 생산이 줄고 실직자가 늘어나는 경기악화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

잠정부가세는 연소득 7,500달러 이하의 독신이나 연소득 1만4천달러이하로 자녀 2명이상을 둔 가정은 제외된다.

7월부터 연 15,000달러 이상을 버는 독신자는 1주에 68센트, 연간 35달러36센트씩, 연소득 4만달러 이상이며 자녀 2명 이상의 기혼자는 주당 2달러77센트, 연 144달러 4전씩 부가세를 내게 된다.

온타리오가 부가세를 도입한 것은 70년대 중반 사스카추완, 2년전 브리티쉬·콜럼비아, 작년에 마니토바가 각각 도입한 데 이어 주로서는 4번째이다.

미국인, 캐나다방문 급증

캐나다통계국 발표

(오타와) 캐나다통계국이 10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인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수효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박이상 체류하는 미국인 방문객의 수가 금년 1/4분기에 8.3% 증가, 110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남부 온타리오주의 난온현상과 미국경제의 회복세, 캐나다 달러의 가치하락의 여파에 의해 B.C.주의 경우 스키시즌에 놀라울 정도로 관광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주는 3월의 경우 작년 동기간보다 18%이상의 방문객이 늘었다.

또한 당일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미국인의 숫자도 전국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했다.

한편 자동차로 여행하는 미국인들이 변동하는 휘발유의 가격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뉴번스위크주나 퀘벡주의 국경지역의 캐나다인들이 미국경을 넘어 싼 가격의 개솔린을 채우고 돌아오는 현상도 두드러졌음이 밝혀졌다.

자동차판매량 증가

4월중 33%상승

북미 자동차제조업계는 지난 4월중 캐나다의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했으며 그 주요원인은 이자율 하락이라고 밝혔다.

크라이슬러, 포드, 제너럴·모터즈등 북미 자동차회사중 작년보다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포드회사뿐이다.

크라이슬러 캐나다회사의 판매담당부사장 G.Y. 랜드리씨는 크라이슬러가 5개월째 계속 판매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캐나다경제가 3년간의 불황을 딛고 회복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종강기념파티

한인대학생회

한인대학생회(KUSA)는 9일밤 8시부터 새벽1시경까지 타투(TATU)에서 약 200여명의 회원들과 졸업및 종강기념파티를 가졌다.

정태교회장 사회로 열린 이날 종강파티에서는 50여 졸업생들에게 이름이 박힌 졸업트로피가 증정됐다.

최국회양 분실여권

본사 보관중

유학생인 최국회양의 분실된 단수여권을 본사편집국에서 보관중이다.

이여권은 11일 교민 정세용씨가 블루어거리에서 습득, 본사에 맡겼다.

63년 1월3일생인 최양의 서울주소는 서울성동구 자양2동 588-26이며 여권번호는 0347238이다.

이화여고 동창회

4일 다운스·뷰델즈팍

이화여고 동창회(회장 김양자)는 봄 야유회및 총회를 오는 6월4일(토) 상오11시 다운스·뷰 델즈팍에서 갖는다.

다운스뷰·델즈·팍은 제인 남쪽 쉐퍼드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준비물은 각 가정의 자랑거리 음식 한가지씩.

문의는 1-895-7594(김양자), 743-0432(이재숙)이다.

서울고등동창 야유회

신록의 새봄을 맞아 83년도 봄야유회를 갖고저 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3년 5월28일(토) 오전11시
장소 : Morningside Park, Scarborough
연락처 : 746-6890 Mr. 이
·275-5974 Mr. 김

서울고등학교 동창회
동창회장 배

할렐루야
메시아한인교회 창립제1주년

1982년5월둘째주일 메시아 한인교회를 창립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영과 육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어 국내와 국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선포하도록 협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일시 · 1983년5월15일(주일) 오후2시30분
□장소 · 메시아한인교회(Hwy 401과 McCowan 서북쪽)
□강사 · PAUL EDWADS 목사

메시아 한인교회 교인 일동

감사의말씀

존경하는 문상객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 많으시기를 합장합니다.

이번 저희 어머님(최글라라) 장례에 분주하신 중에도 몸소 찾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옴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 드립니다.

1983년 5월
아 들 김태영
며느리 남이
사 위 김학성
딸 김천순

◆NHL 스탠리컵 경기첫날 뉴욕 아일랜더즈의 듀앤·슈터선수(오른쪽)가 에드몬톤 오일러스의 앤디·무그골리를 제치고 선제골을 넣고 있다. 이날 17,000여관중이 참석한 경기에서 뉴욕이 2대0으로 선승했다.

스탠리·컵은 어느팀으로?

아일랜더즈, 오일러스팀격파 첫승리장식

금년도 NHL(내셔날하키리그)의 최종결전인 스탠리·컵쟁취 Best-of-Seven 첫대전에서 뉴욕 아일랜더즈가 에드몬톤 오일러스를 2대0으로 물리쳐 서전을 장식했다.

10일밤 에드몬톤 노드랜드·콜리세움에서 열린 첫경기에서 양팀은 시종 공방끝에 열전을 벌였으나 결국 아일랜더즈가 1,3피리어드에 각각 한점씩 기록 2대0으로 승리했다.

17,500여명의 관중들은 캐나다팀의 패배가 믿어지지 않는듯 넋을 잃었다.

아일랜더즈의 윙(wing) 마이크·보시선수는 감기기운으로 출전하지 않았다.

한편 웨인·그레츠키선수는 비록 첫게임에 패배했으나 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분투했다고 말했다.

스탠리·컵 4회연속우승을 노리는 웨일즈 컨퍼런스 승자인 아일랜더즈와 그레츠키를 주축으로 한 캠벨컨퍼런스의 승자 오일러스의 대전은 각팀의 우세한 실력의 평가뿐 아니라 가장 우수하고 각종 기록을 지닌 선수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하키팬들의 관심이 총집중되어 있다.

특히 웨인·그레츠키, 트로티어선수의 콤비네이션 플레이, 아일랜더즈의 마이크·보시, 데니스·팟빈등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들은 뉴스메디아의 경쟁초점일뿐 아니라 팬들의 이목과 응원의 대상이 다.

82-83년 시즌경기에서 양팀은 3번격돌, 모두 아일랜더즈가 승리, 총스코아 14대8로 우세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오일러스는 패전율이 아일랜더즈보다 낮고, 최근 상승세의 기류로 보아 과거의 전적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글렌·세더 코취는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팀의 대전이 금세기에 가장 빅·게임이 될것으로 전망했다.

오일러스는 이번 시즌중 결승까지 오르는 동안 많은 NHL기록을 수립했다.

컨퍼런스 결승라운드에 가장 많은 득점(35점), 한게임에 가장많은 득점수(7점, 그레츠키), 한피리어드의 고득점(3점, 그레츠키)등 16개의 신기록을 지니고 있다.

한편 제2차전은 12일밤 역시 에드몬톤에서 열린다.

몬트리얼소식

정관성지국장

지국 주소는: 6715 P1 Villon Brossad P.Q. J4W 2V4 전화 (514)672-8399

김영주·정윤희양 각각1등

몬트리얼 클래식음악경연대회

지난 4월14일부터 17일까지 몬트리얼 마리아나폴리스대학 강당에서 12개부문에 109명이 참가한 A Classical Music Festival(Sponsored by N.D.G.Community Council)에서 9살이하 부문에 정윤희(Lucille 10살)양이 21살이하 부문에 김영주(Juli)양이 각각 1등을 차지, 교포의 예술적자질을 이곳 몬트리얼 시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곳 유일한 영어신문인 가제트(Gazett)지는 정양의 큰 사진과 함께 이 소식을 실었다.

정양은 몬트리얼대학 생물유전학교수 정영섭박사와 곧 영양학박사학위를 받게될 정인희여사의 외동딸이다.

Villa Ste.Marcelline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정양은 Vincent d'indy주최 경연대회에 81년부터 83년까지 매년 계속 1등, 특히 83년에는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올해 5월에 있었던 캐네디언·뮤직경연대회에서 패베주 1위를 함으로써 7월에 있을 캐나다전역 각주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출전한다.

김영주양은 74년8월 몬트리얼로 이민왔으며 상업을 하는 김재원씨와 서병영 여사 사이의 1남2녀중 장녀이다.

81년 5월 마리아나폴리스대학 강당에서 약 700여명이 모인가운데 졸업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었다.

현재 메길대학 음악과 2학년을 수료한 김양은 루바죽교수에게 사사하고 있으며 메길대학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이날 심사위원중 한사람은 김양은 이미 음악세계에 뛰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휴가를 생각하지 말어라 하면서 그의 탁월한 음악성을 칭찬했다.

◆정윤희양.

◆김영주양.

김낙중목사 취임

한인장로교회

김낙중 목사가 5월부터 몬트리얼 한인장로교회에 부임했다.

토론토대학에서 공부한 김목사는 토론토 한인교회, 해밀톤연합교회에서 시무했었다.

◆김낙중 목사

2세위한 워크숍 강사 최경자목사

토론토의 최경자목사가 오는 14일 몬트리얼 한인연합교회(목사 배한국)의 여신우회(회장 이숙경)에서 주최하는 2세를 위한 워크숍에 초청되어 집회를 인도한다.

현재 파우즈연합교회 교육목사로있는 최목사는 또한 여신우회헌신예배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예정이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연재소설〉

혼돈 ⑳

글·이태준 그림·최미정

제2편 착수

"오빠가 웬일이야? 당구를 칠려구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구"

"미영아"

하려던 영수의 입이 벌어진채로 다물어지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영수는 한참후에야 당구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영의 뺨이라도 한대 치고 나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부글부글 가슴속에서 끓고 있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 미영에게로 다가갔다.

"미영아, 우선 여기서 나가자"

태연을 가장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목소리였다.

"오빠, 나는 보다시피 요모양 요꼴이야! 얘기를 해봐야 서로가 괴로울테니까 나를 못본 것으로 하고 그냥 가"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괴로운듯이 중얼거렸다.

영수는 미영의 손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담배를 뽑아버리고, 미영의 손을 잡아 일으켜세웠다.

"미영아,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집으로 가자!"

"오빠! 나는 집으로 갈 수 없어. 이 애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거야. 나도 몇번이나 도망을 칠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매만 맞았어. 이 애들은 깡패들이야"

"나도 알고 있어. 너는 나만 따라 나오면 돼"

미영은 두려운 눈빛으로 당구키를 들고 험악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두목 잭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있었다.

"오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애"

"염려할 것 없어. 이미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영수는 미영의 손목을 붙들고 출구를 향하여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다. 미영은 어쩔수 없이 그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심하게 절룩거렸다.

"오빠, 나는 잘 걸을수가 없어"

"왜?"

날카로운 눈초리로 네놈을 쏘아보며 걷던 영수가 걸음을 멈추고 미영을 돌아다보았다. 미영을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었다.

"미영아, 왜 그러니? 무서워서?"

"문앞에 서있는 저 잭이란 애가 무서워, 몇번이나 도망치려다 저애한테 들켜서 죽도록 맞았어. 저애의 별명은 악마야. 내 다리도 저 애가 병신을 만들어 놓았어"

"저 놈이 네 다리를···."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만 있었다.

점점 하얗게 바래가는 영수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몇푼의 돈을 쥐어주고 집을 나간 어머니는, 그리고 애자를 끌고 나간 아버지는 지금 미영이가 어떠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 모습의 미영이를 보면 뭐라고 할까?

미영을 본

영수의 눈에 눈물이···

영수는 많은 질문을 던지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도 그들의 모습은 냉엄하게만 떠올랐다.

그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잭- 너는 오늘이후로 두발로는 걷지 못할 것이다"

미친듯이 외쳤다.

"미영아? 나는 잭의 정강이 뼈를 부셔버리지 않고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저놈들과 싸우는 동안 너는 여기를 빠져나가라. 꼭 집으로 가야한다"

영수는 야비하게 웃고있는 잭을 노려보며 웃옷을 벗어 미영이에게 주었다.

"이 옷도 가지고 가라. 안주머니의 지갑안에 돈이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뛰며 옆차지르기로 잭의 가슴을 날카롭게 걷어찼다. 무방비상태로 서있던 잭이 신음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쳤다. 영수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당구대위로 뛰어올라 주위에 서있던 세놈의 턱을 발등으로 연타했다.

세놈이 볏단넘어지듯이 싱겁게 무너졌다. 영수는 다시 뛰어내려 오면서 세놈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차밟기로 발목을 짓밟아 버렸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당구장안을 메우고 있었다.

영수는 다시 잭을 향하여 돌아섰다. 잭에게 선수를 쳐놓고 세놈을 먼저 처리한 것은 숫적으로 불리한 상태를 감안한 작전이였다.

"영감, 전화기에서 손을 떼는 것이 신상에 좋을거야"

뒤돌아서는 순간에 알아차린 영수의 고함소리에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에 손을 대려던 주인영감이 깜짝놀라며 손을 움츠렸다.

잭은 칼을 빼어들고 영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형광등에 반사되어 푸른 빛을 내고 있는 예리한 칼을 보자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잭, 나는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잭이 비정한 웃음을 흘리며 거리를 좁혀왔다. 잭이 다가온 만큼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뒷걸음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벽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그만큼 행동반경이 좁아지므로 공격과 방어에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땀을 쥐게 하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야앗!"

찢어질 듯한 기합소리가 침묵을 깨면서 영수의 몸이 솟구쳤다. 동시에 잭의 칼날이 물위에서 뛰어노는 물고기의 비늘처럼 허공에서 번득거렸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진 잭의 코에서 피가 흘러 내렸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ALL MIXED UP.

모임같은 곳에서 인사를 나눌 때 얼굴도 서로 비슷한데다 Mr. Gim, Mr. Yi가 하도 여럿이기 때문에 더욱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모양이다. 이런 경우 흔히 들 I'm all mixed up.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경우 be mixed up은 「혼동하다」는 뜻으로 「혼동이 되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다.

「그 외국인은 우리 이름을 모두 혼동하고 있다」를 be mixed up을 넣어 옮겨 본다면 The foreigner is all mixed up on our names. 하면 되고 시차가 많이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I'm mixed up on the time. 이라고 했다면 「시간이 혼동된다」는 말이 된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처럼 생긴 동양인을 만나게 되면 반가운 생각이 앞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네 올텐데 아닌 경우 Huh? 혹은 Excuse me? 아니면 뭐라고 자국어로 지껄이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같은 동양계이면서도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혼동하는 경우에도 I'm all mixed up about the people. (사람을 구별하는데 혼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A: Where were you yesterday?
B: Yesterday? I was at home. Why?
A: You were supposed to meet me for lunch.
B: No. Our date is for tomorrow, Thursday.
A: No, it was yesterday, Tuesday.
B: Oh, you're right. I'm all mixed up on the days.
A:어제는 어디 계셨어요?
B:어제요? 집에 있었는데 왜그러시죠?
A:점심을 함께 하기로 되어 있었죠.
B:아니오. 우리 약속은 내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A:아니에요. 화요일인 어제였어요.
B:아, 그렇군요. 제가 날짜를 혼동했었읍니다.
※be supposed to:~하기로 되어 있다.
Ex. I was supposed to go to the movies with him.
(그와 영화관에 가기로 했다.)
※foreigners:외국인, 외국어:foreign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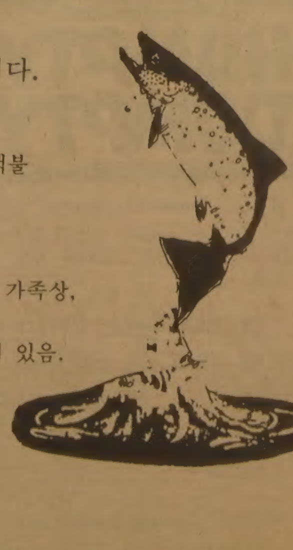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111 60053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 966-4050

낚시대회 공고

제3회 한인친선 낚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낚시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3년 5월23일(월) 빅토리아·데이 오전 9시~오후 5시(우천불구)
◈장 소 : Bellwood Conservation Park
◈참가비 : 어른-10불, 어린이(13세미만)-5불
◈준비물 : 낚시도구및 점심 ※미끼는 각자 준비할것.
◈연락처 : Mr. 리(499-3299), Mr. 고(690-1496) Mr. 김(293-0117)

◈시상및 상품 :
특등…낚시협회 회장트로피및 상금 3백불
1등…한인회장 트로피및 부상
2등…총영사 트로피및 부상
3등…실업인협회장 트로피및 부상
※노익장상, 부녀상, 아동상, 감투상, 가족상, 잉어상 등 각각 트로피.
⊙기타 행운권 추첨, 기념품 증정 등이 있음.



◈협찬단체및 업체 : 토론토 한인회, 토론토 총영사관, 금성사, KAL, 한국식품, 에코시스가구점, 토론토 한국일보, 한인실업인협회, 민중신문사, 김국일트로피, 코리안 저널사, 거구장

〈가는길〉
토론토에서 HWY 401을 타고 West로 가다가 "인터체인지 36A"로 빠져나가 HWY 6 North를 따라 Guelph를 지나서 북쪽으로 더가면 Fergus라는 작은 마을이 있음. 이곳에서 3마일 북쪽에 위치함.

주최 : 한인낚시협회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 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캐나다상공회정회원으로

한인경제단체로 최초가입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가 한인경제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캐나다상공회의소(The Canadian Chamber of Commerce)회원으로 가입 등록을 필하였다.

협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정보와 대정부 접촉및 건의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동안 꾸준히 캐나다상공회의소 가입 가능성을 타진해 오던 중 드디어 그 가입이 인가되어 지난 5월3일 First Canadian Place에 위치한 토론토사무소에서 Mr. Reg Clark(Director of Operations) 입석하에 차선경 회장과 서준경 이사장이 동석, 서명함으로써 가입절차를 마쳤다.

카나다상공회의소는 가장 포괄적이고, 범업종별 경제단체로서 오일회사와 같은 대규모기업에서부터 소규모의 소매상인에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한 캐내다내의 유일한 경제단체이기도 하다.

가입수속을 마친 후 Mr. Clark은 "1,200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한 한국인 경제단체인 실협이 한국인 경제단체로서는 최초의 회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좋은 건의를 해주기 바라는 동시에 서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고, "지난 3월의 10주년 기념파티는 회원상호간의 단결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훌륭한 행사로서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각국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생긴 상공회의소는 캐나다에는 Halifax에 최초의 Board of Trade가 설립된 것이 그 기원이다.

Board of Trade와 Chamber of Commerce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똑같은 기구인데, 상공회의소의 활동분야가 단순한 교역(trade)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됨에 따라 Board of Trade라는 협의의 명칭이 적합치 않아서 Chamber of Commerce로 변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두고 호칭해 오던 Board of Trade 명칭을 바꾸기를 싫어하는 일부지역의 상공회의소는 과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의 회원수는 14만4천명이고, 토론토에 약 1만의 회원이 있다고 한다. 그중 KBA와 같은 「협회」(Association)의 회원이 약 70개 된다고 한다.

「실협」이 캐나다상공회의소에 가입해야할 필요성은, 세제, 경제정책, 사회복지, 노사문제, 교육, 연구개발등 15개의 정책연구위원회가 상존하여 전체 회원의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으므로 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성인잡지」문제, 「경찰고발」문제등과 같은 각종 법률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로비」활동등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영향력 있는 경제단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인커뮤니티에서 무역인협회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의 각종 Small business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실업인협회 뿐이므로 국내적으로는 캐나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모국과는 한국의 주요경제단체인 「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및 「중소기업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협회의 대표자가 모국을 방문중에 있음) 명실 공히 대표적인 한인경제단체로서 그 기반을 굳히고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Clark 토론토회장과의 기념촬영. 좌로부터 차회장, Mr. Clark, 서이사장.

"실협의 밤" 수익금

$5천 한인회에 기부 결정

지난 3월26일 개최된 "실협의 밤"행사의 수익금 약1만불중 5천불을 한인회에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수익금의 처리는 회장단과 이사장단에게 일임하되 가능한한 한인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자는 결의에 의해 취해진 것이다.

수익금 전액을 보조하는 문제도 거론되었으나 7월경부터 가동하기로 되어있는 "컴퓨터"가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5천은 이에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많은 한인단체중 한인회로 결정한 것은 전체교민이 관여되어 있는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모체이면서 항상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실업인협회와 같은 단체가 힘자라는대로 이를 지원해야겠다는 사명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많지 않은 금액이나 이는 1천여 실협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성금으로 생각하고, 한인회에서는 적절히 사용해 주기를 협회는 바라고 있다.

Humpty Dumpty 프로모션

Humpty Dumpty 칩스회사는 5월9일부터 20일까지 200그람 Bag 칩스에 대해 프로모션을 실시하는데 내용은 5c/s 매입에 1c/s 무료제공이라고 하며, 많은 회원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한다.

빵가격 평균3¢ 인상

450 그람 O.K. 빵 75¢

「멤스터」빵회사는 인건비, 동력비, 포장재료비등의 인상으로 5월16일부터 평균 3센트씩 빵가격이 인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실협"의 O.K.빵의 원가도 450그람이 58센트에서 60센트로, 675그람이 68.7센트에서 70.9센트로 각각 2센트와 2.2센트가 인상됨으로써 소매가격도 450그람을 72센트에서 75센트로, 675그람을 90센트에서 93센트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White Bread 이외의 빵제품에 대한 7% 리베이트에는 변동이 없다.

O.K.빵 가격인상에 따른 이윤의 대비표는 아래와 같다.

	인상전		인상후	
	원가	이윤	원가	이윤
450그람	58센트	19.4%	60센트	20%
675그람	68.7센트	23.6%	70.9센트	23.7%

협회, 컴퓨터 설치계약

I.B.M. 8월 가동

회원수가 1,200명을 돌파하고, 협동조합의 탄생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의 능률적인 소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던 「컴퓨터」가 드디어 8월경부터 협회에서 가동하게 되었다.

JAG System Consultants Ltd와의 계약체결로 도입되는 이 「컴퓨터」는 현재의 사무실 업무뿐 아니라 협동조합의 「인벤토리」를 포함,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기계이다.

컴퓨터의 사용으로 얻어지는 잇점은 프로그램 작성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겠으나 당장 현재의 협회업무를 기초로 한 잇점을 몇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회원의 실태파악--회원 「스토아」의 인적사항, 주요상품의 거래처등을 포함한 각종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소유주등 각종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해서 정리해 주며, 「스토아」를 지역별, 업종별로 즉시 선별해 주기도 하고, 회비납입 의뢰서를 만기 1개월전에 자동적으로 선별하여 「스토아」별로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도 한다.

2. 우편물 발송처리--아직까지 손으로 일일이 준비하던 1,200회원에 대한 우편물을 자동적으로 주소를 작성, 부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준다.

3. 리베이트에 관한 「데이타」--거래업자들이 회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업자들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모든 자료와 산출을 업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정확한 리베이트가 지불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고, 거래회원이 빠짐 없이 협회에 보고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이 제도를 콤퓨터에 의해 협회가 파악하고 있음으로써 부당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이득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쿠폰 처리의 간소화--약300여 회원이 보내오는 쿠폰을 금액별, 회사별로 구분하여 신청용지에 기입하고 이를 합계하여 발송하는 업무가 거의 한 사람의 full-time 업무량이 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있는 그대로 한장씩 「펀치」만 하면 자동적으로 선별하여 스토아별로 합계까지 내서 신청서를 작성해 준다.

5. 「인벤토리」파악--협동조합 설립후 「인벤토리」등 각종업무량을 소화시킴으로서 본격적으로 「컴퓨터」의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

JAG회사에 의하면 협회가 요구하는 software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6주내지 8주가 소요되며, 7월중순경에 설치되면 기술자가 직접 협회사무실에 나와서 「트레이닝」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로써 수개월내에 실협의 업무처리 방법은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고, 현재 무리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는 3명의 유급직원도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B.A. 교환센타

▲Hardware Stock이 많이 있음.
원하는 물품만 소량이라도 염가로 제공함.
(669-6438 Mr. 염)

▲Bulk Cabinet 6 feet(Scoop Ice Cream Cabinet)구함.
(276-3266 김요현)

▲Used Cash Register 구함.
(421-5151 김용준)

▲Pop Cooler와 Freezer 새것 또는 중고구함.
(226-1040 Mr. 리)

▲선반2개(길이 4" × 높이 6")
진열장1개(길이 5" × 높이 4") 팝니다.
531-7556 오후6시 이전
248-2636 오후6시 이후

▲잡지 Rack 4"넓이 × 6"높이
Shelves 4"넓이 × 6"높이 팝니다.
(669-6438 Mr. 염)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용신의 「人間市場」
●한국 參事 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HUMPTY DUMPTY
Humpty Dumpty회사에서는 실협회원에게 아래같이 푸로모숀을 실시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200그람 Potato Chips
내 용-5 C/S 매입에 1 C/S Free
기 간-5월9일~5월20일
Humpty Dumpty Foods Ltd.
195 Rexdale Blvd, Rexdale, Ont.
전화 : 743-9191

도나쓰업 경영하시는
여러분에게
금반 Club Coffee회사에서는 실업인협회와의 협약하에 아래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회원여러분과 인연을 맺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아직 주저하고 계신 동업자 여러분은 하루 속히 실협에 가입하여 Club Coffee회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Coffee(Invoice Price)
Whole Bean - 5 lb bag $3.00 per lb.
Ground - Portion Pack $3.15 per lb.
Ground -Pounds $3.08 per lb.
◆리베이트 lbs당 15센트
◆배달-최하 20lbs(1c/s)
◆장비-회사에서 제공
차용장비무료대체
수리비(부속, 노력)무료 써비스
◆지불-익월15일
◆가격변경-30일전에 서면통지
Club Coffee COMPANIES Since 1906
연락처
김춘남 886-2830
Joseph Ciccoritti 447-4981
실협사무실 533-7923

YORK
YORK ICE CREAM
A DIVISION OF CANADA PACKERS LIMITED
PROMOTION
품명 - Canterbury 1 ltr.
종류 - Vanilla
Chocolate
Heavenly Hash
Brickle Peacan Crunch
기간 - 4월21일~6월22일
원가 - 개당 $2.05
4개 $8.20
싸인 - 윈도우싸인과 캐비넷싸인제공
여름철을 앞두고 Premium 아이스크림 스페셜을 장장 2개월간 실시하오니 실협회원의 이용을 바라고 적정소매가격은 $2.39를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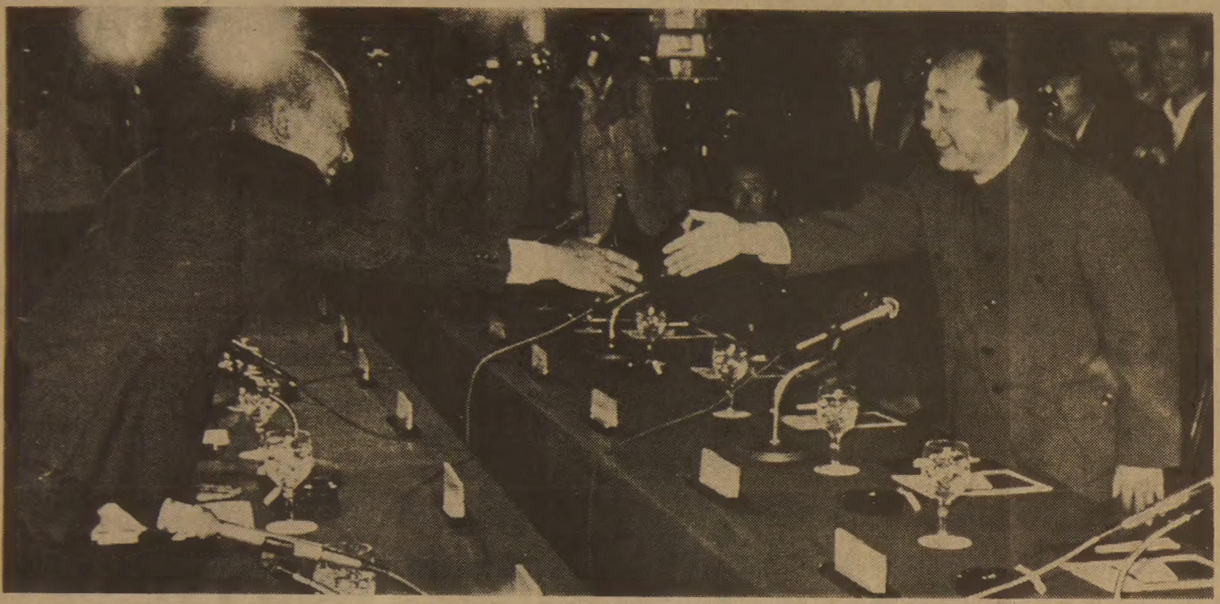
한국일보

승객·機體 송환협의

中共대표단 特別機편 入京

어제하오 신라호텔서 韓·中共 첫 공식會談

拉致犯 처리문제 重點토의



◇歷史의 새章… 한국·中共 양측 代表의 악수

오랫동안 壁을쌓아왔던 한국과 中共이 여객기被拉사건처리를위해 처음으로 공식對坐했다。사진은 7일하오 회담에들어가기앞서 한국측수석대표인 孔魯明외무차관보(右)와 센투(沈圖)中共民航총국장이 악수를하고있다。

2시15분 兩側대표 예비 접촉 議題협의
4시10분 1차접촉후 病院·워커힐 방문

정부는 中共여객기 被拉사건과 관련, 한국과의 교섭을위해 7일 낮12시30분 入京한 中共대표단을 맞아 이날하오 서울 新羅호텔에서 被拉승객·승무원및機體 송환절차와 방법, 납치범처리문제등에관해 직접협상을 벌였다.

그런데 교섭이 순조로울 경우 승객과승무원등은 빠르면 今明간 中共으로 송환될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가없는 中共당국자가 공식訪韓, 우리정부와 직접교섭을 갖기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이며 지난 49년 中共政權수립이래 한국과 中共간의 첫공식접촉이다. 또 이번 中共대표단의 訪韓은 한국動亂때 中共이 北韓을지원한 이래 中共관리로서는 처음이며 中共항공기가 中共비행정보구역에서 한국정보구역으로 직행한것도 처음있는일이다.

한국 "國際관례따라 처리" 中共 "乘客보호해줘 감사"

兩側首席인사

이날 양측대표단은 하오2시30분부터 3시35분까지 1시간5분동안 호텔23층에서 한국측에서 수석대표인 孔魯明외무부 제1차관보 金炳連亞洲국장 金徹容교통부항공국장 통역1명, 中共측에서 수석대표인 센투(沈圖)中共民航총국장등 3명과 통역1명등 8명이 참석한가운데 오찬을겸해 예비회담을갖고 양측이 다룰議題와 승객·機體 처리문제등을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양측대표들은 이어 4시10분 자리를 회담장인 영빈관 루비룸으로옮겨 쌍방대표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15분 동안 相見禮를겸한 회담을갖고 인사를 교환했다. 양측은 8일 2차회담을 열어 승객및 機體송환문제와 납치범 처리문제등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

이날15분동안 진행된 첫날회담에서 우리측의 孔수석대표는 인사말을통해 『이유야 어떻든 우리땅을 밟은데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헤이그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이번문제가 잘처리될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센투 中共수석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승객과 승무원·機體등을 잘보호해준데 감사하며 지금까지한국정부가 취한일련의 조치는 정당한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회담은 孔대표가 부상한 승무원이 치료를받고있는 우리측병원과 승객들이 묵고있는 워커힐방문을 中共측에제의, 15분만에 끝났으며 양측대표들은 이어 병원과 워커힐등을 방문했다.

이날 예비회담에서 정부측은 이미 밝힌대로 헤이그협약의 정신을 살려 機體및 승객·승무원의 송환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따라 中共측과 절차, 방법, 시기문제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拉致犯의 처리문제에관해 한국측은 主權국가의 입장에서 헤이그협약 당사국의 항공기납치범처리사례등을들어 우리정부의 裁判權행사를 주장한반면 中共측은 납치범의 송환을 주장, 교섭에 難航을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約定을 맺기위해 실무작업에들어갈것으로 알려졌는데 납치범처리문제를 제외한 승객·승무원의 송환문제는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질경우 빠르면 今明간 中共대표단이 타고온 보잉707 특별기편으로 中共에 돌아가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機體송환문제는 離陸할때의 기술적인 어려움이있어 다소시간이 걸릴것으로 관측되며 입원중인 항법사와 무전사의 경우도 완치될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무르게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中共대표단 일행은 이날저녁 8시 한국측이 코리아하우스에서 베푼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양국의 대표단명단은 다음과같다.

한국측

◇首席대표=孔魯明外務部次官補

◇대표=▲金徹容交通部航空局長▲金炳連外務部亞洲局長▲李承坤外務部본부公使▲朴熺太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李元甲KAL기술담당이사▲李桂淵KAL고문▲김정수▲尹泳憲교통부국제과장

中共측

◇首席대표=▲센투(沈圖)中國民航總局長(국장급)

◇대표=▲후아 기아진 〃安全部副部長▲무루이린 國際司副司長▲지알링 國際司통역▲리 징카이 職員▲슈광 〃▲치안 웬롱 〃▲카오야오지안 安全部長辦公室秘書▲바이 지안 處副處長

승객·機體·범인등 조속送還을 희망

沈圖 총국장 기자會見

센투(沈圖)中共民航總局長을 수석대표로한 中共대표단 9명과 승무원·기술진 24명등 일행33명이 7일 낮12시30분 보잉707특별기편으로 金浦공항에 도착, 기자회견을 가진뒤 센투총국장이 하오1시35분, 나머지 대표들은 1시46분 각각 숙소인 新羅호텔에 도착했다.

센투총국장은 이날 공항에서가진內外기자회견을통해 『국제공약에근거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될수있는대로 빨리 탑승객·조종사·기체가 中共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했으면한다』고 요망했다.

그는 이어 『비행기를 납치한 범인들을 역시 中共측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행기 납치범들은 무력을 가진 暴徒들이며 중공당국이 수사하고있는 죄수들이나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항에는 孔수석대표, 金외무부亞洲국장, 金교통부항공국장, 孫薰외무부의전담당관등이 출영했다.

센투總局長의 회견내용은 다음과같다.

—中共정부관리로서 대한민국에 入國한 소감은.

▲한국정부가 이번사건을 처리할수있게 편리를 도모해줘 고맙게 생각한다.

—被拉여객기처리문제에 대한 中共의 처리방침은.

▲아는바와같이 비행기납치행위는 국제적으로 규탄받는 일이다. 세계여러나라가 오랜경험을쌓아 항공기납치행위를 방지하는 국제협약이 만들어져있는 만큼 이번사건을 그협약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中共승객들 서울 나들이

南山팔각정에 오른 中共승객들은 신록에 감싸인 서울전경에 도취된듯 빌딩가와 漢江주변을 골고루 살펴보았다.

北傀軍 대위1명 또 歸順

어제새벽 동부전선서 休戰線 넘어와

북괴군 대위1명이 또 휴전선을 넘어 귀순했다.

국방부는 7일상오 북괴군 제13사단 민경대참모장 沈중철대위(36)가 이날새벽 동부전선 楊口북방 21㎞지점 휴전선을넘어 귀순해왔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귀순자는 부슬비가내린 이날새벽 어둠을틈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에 은신중, 순찰중이던 국군초병에 발견되자 귀순의사를 밝혔다는것.

沈대위는 초병의 안내로 국군초소에 도착하는 순간 지친 모습으로 『北에서는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대변인이 전했다.

沈대위는 6·25이후 북한의 육해공군과 민간인을 합쳐 94번째 귀순자다.

災難上陸 허가서 법무부, 승객에발급

법무부는 7일 피납된 중공기의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 재난 상륙허가서를 발급했다.

중공 교섭대표단 33명가운데 송환교섭대표 10명에 대해서는 입국허가서를,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나머지 승객수송요원 10명에 대해서는 전선(轉船)상륙허가서를 각각 발급했다.

법무부가 피납기의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한것은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불법입국한셈이기 때문에 신분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어 출국이 정식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취해진조치다.

休戰線 침범 南下때 警告사격… 着陸유도

F5A등4개편대(14대)출동 45분동안 추적해 退路차단

공군은 지난5일 중부전선○○기지에 불시착한 中共여객기가 북한상공을 거쳐 휴전선을넘어 남하할때부터 ○○기지 비상착륙때까지 약45분간 F5A, F5E및 F4D편대등 4개편대(14대)가 출동하여 중공기에 대한 추적, 퇴로차단및 안전착륙유도등 임무를 한치의오차도없이 수행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날 공군전투기들은 휴전선 남하직후 다시北上을 시도한 중공여객기에 대해 위협사격까지 가하며「일단 우리영공을 침범한 정체불명의 항공기」의 탈출을저지시켰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번 중공여객기의 불시착사건과 관련, 우리공군은 현대식 레이다장비로 피납항공기의 항적을 조기포착하고 두차례의 미그19기 귀순때 얻은 교훈을 살린 적극적 공중감시 체제와 적절한 조치로 사태를 완벽하게 마무리한반면 北傀공군은 레이다성능이 「피납신호」를 식별하지도 못했으며 필요한 전술조치의 지연으로 문제의 여객기에 대한 저지나 요격을 시도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中共여객기의 포착에서 비상착륙까지 공군의 조치사항은 다음과같다.

하오1시25분 ▲平壤북방30마일상공의 피납기 항적포착 ▲永宗島상공의 F5A2대 임무전환 ▲F5E8대 긴급출동

하오1시57분 ▲여객기휴전선 월경▲F5A편대, 육안으로「中國民航機」식별

하오2시 ▲F5E편대도 여객기 육안포착, 추적 ▲F4D 편대출동, 퇴로차단

하오2시5분 ▲여객기 좌선회, 北上기도 ▲아군전투기 위협사격, ○○기지로 유도 ▲여객기 中共관제소 호출시도

하오2시10분 ▲여객기 ○○기지에 착륙 ▲中共과 北傀관제소간「여객기와의 교신여부」를 묻는 교신을 공군방공망이 청취함

"人道主義입각 직접交涉수락"

許文公차관 밝혀

정부대변인대리인 許文道문공부차관은 中共대표단의 入京에앞서 7일상오 『정부는 中華人民共和國측으로부터 지난 5일 피납, 한국에 착륙한 自國여객기와 관련한 처리문제를 협의키위해 대표단의 한국방문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고 『정부는 인도주의적입장과 理念을 초월한 善隣정신에입각, 국제법과 국제협약정신을 존중해 中華人民共和國당국자의 訪韓제의를 수락, 서울에서 직접 송환교섭을 벌이기로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당국자는 中共대표단의 訪韓교섭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국측은 中共대표단의▲入國관계및 교통▲숙박및 체재 ▲訪韓인원및 특별기에대한 서비스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許차관은 韓·中共직접협상과 관련한 정부발표를통해 中共을「中華人民共和國」으로 呼稱했으며 中共측도 지난6일 우리측에 보낸電文에서 大韓民國(Republic of Korea)이라는 호칭을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拉致犯들 국내처벌 政府, 형사입건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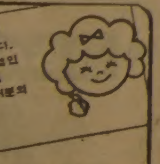
정부는 中共여객기 납치사건과 관련, 6명의 拉致犯을 國內法에 따라 刑事입건한뒤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검토중이다.

7일 정부 한고위소식통은 납치범의 신병처리에 언급, 『납치사건의 경위와 동기등에 대한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中共측과의 협의결과등에따라 대책이 마련될것』이라고 전제한후 『현재로서는 재판권 행사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것으로안다』고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항공기 不法납치에 관한 각종 국제법및 협약, 과거의 先例등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없는것으로 본다』고 밝혀 拉致犯을 中共측에 인도하지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地平線

봄비는 꽃의 慈母라고 한다. 자녀를 키워가는 어진 어버이는 慈父와 慈母로도 표현된다. 봄비가 걷힌 오늘, 어버이날이 마침 일요일과 겹쳤다. 휴일의 가정과 거리엔 카네이션 물결과 더불어 「慈愛의 향기」가 넘칠 것이다. 어버이에 대한 공경심을 다져 보는 이날은 한해중 가장 아름다운 날로 꼽고 싶다. 심하게 가정의 급변을 겪으면서 孝의 뜻을 다시 새겨 보게 된다. ▼부모의 위치는 여러요인으로 몹시 흔들리고 있다. 인류학자 마거리트·미드여사의 지적대로 「세대차가 전례 없이 심각한 양상을 띠게 전세계에 만연된 상태다」세대는 자연스런 흐름이지 단절은 아니다. 간혹각으로 놀리기는 하나, 세대교체라는 「장기의 [illegible]」는 어버이와 老年층 [illegible]의 자리를 뺏아 내팽개[illegible] ▼현대의 [illegible] [illegible]



❖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體

주간女性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직접對坐」에 깜짝 놀라"

韓·中共 전격서울협상 日本의 반응

「對韓전달」요청을 「仲裁의뢰」誤認도
韓半島긴장완화의 前兆 되길 기대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외무성은 국교가없는 한국과 중공당국이 직접대화로 中共民航여객기 납치사건의 조속한해결을위해 서울에서 무릎을 맞대고 한테이블에 앉게된것에 깜짝 놀라고 있다.

일본외무성은 한국과 중공간에 외교관계가 없기때문에 결국 일본의 중재를 받아 비행기납치사건을 해결할것으로 점쳤었다.

중공은 공중납치사건이 일어난 5일하오3시 일본외무성에 대해 『단순한 비행기납치 사건이므로 승객과 승무원, 기체및 범인을 즉각 인도해줄것과 이를위해 中共民航의책임자를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측에 전달해줄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중공당국의 「단순한 전달사항」을 중재의뢰로 오인하여 그때 나까소네(中曾根) 일본수상을 수행,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순방중인 후지나미(藤波) 관방부장관이 중공의 민항기납치사건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자청하기까지했다.

그러나 이사건은 한국과 중공간의 항공텔렉스로 직접신한 끝에 한국·중공양국간의 공식적인 교섭이 시작돼 7일 중공고위관리가 서울에들어가 韓·中共회담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일본외무성은 한국과 중공당국이 직접대좌하게된것을 계기로 韓·中共간의 우호분위기가 조성,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보탬이될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東京외교소식통들은 고차원의 정치적판단이 요청되는 이번 직접대화에 앞서 한국과중공양국이 예상외로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주목했다.

일본외무성측은 한국 중공간 직접 접촉이 당장은 긴급사태해결을 위한 기술적범위를 벗어나지 못할것으로 보고있으나 정치적면을 포함해서 앞으로 사태전개를 주의깊게 지켜볼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요미우리(讀賣) 아사히(朝日) 마이니찌(毎日) 신문등 일본의 일간유력지들은 1면톱을 비롯, 3~4페이지를 할애, 이번사건을 보도하면서 중공여객기의 납치사건을 계기로 沈圖민항국장이 한국을 직접방문, 韓·中共간의 직접교섭에 나선것의 한반도정상화에 기여할것으로 평가했다.

여객기납치라는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韓·中共고위관리가 접촉하게 된것은 극히 자연스러운일이며 작년10월 소련의문화성고위관리와 관영타스통신사대표가 한국을 방문한것과함께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보탬이될 것이라고 이곳 매스컴들은 분석하고있다.

한국과 중공간에는 범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있지않기때문에 공중납치범인에대한 중공소환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일차적인재판관할권을가진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될것이라고 일본신문들은 분석하고있다.

아사히, 니혼·게이자이(日經)등 일본 신문들은 7일 조간에 사설을 싣고 한국정부가 공중납치방지조약에 의거하여 조속히처리하겠다고한의사표명에찬성의 뜻을 표하고 범인처리문제고한 한국정부의 의사에따라 중공에 송환할수도있고 한국정부가 재판할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했다.

닛께이(日經)신문은 사설에서 범인처리문제에 대해 항공기납치범에대한 재판관할권이 ①납치된항공기가 등록되어있는 나라 ②그항공기를 임차한 개인과 법인의 본국 ③납치된 항공기가 착륙한 나라등 3가지경우에 속해있다고 지적하고 범인재판권은 제일차적으로 한국에있다고 강조했다.

이사설은 비행기납치사건은 불행한 사건이기는하나 결과적으로 각료급의중공요인이 방한, 韓·中共정부간의 교섭으로 발전된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위해 유익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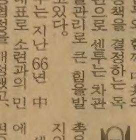
그런가하면 아사히와 마이니찌신문도 사설에서 한국정부가 발표한 공중납치방지조약에 의한 해결에 전적으로 찬의를 표했다.

납치사건은 한국으로서는 생각지도 않은 재난일수도 있으나 이사건처리를 위해 중공民航총책등 고위관리가 급거 서울로와서 韓·中共당국자회의를 가진것은 장기적으로보면 88올림픽을 성공시키려는 한국의 국제지위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이신문들은 지적했다.

이신문들은 그밖에도 한국정부는 기체와 승무원및 승객에 대해 송환할 뜻을 비쳤으나 문제의 범인처리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재판권을 가진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신문들은 국교가 없는 한국과 중공의 직접대화가 단순한 기술적협의를 넘어서 양국간 정치대화의 첫걸음이 될수있다고 한결같이 내다보고 있다.

센투(沈圖) 中國民航총국장



이번 中共교섭단을 이끌고 온 中國民營航空總局長 센투(沈圖)는 올해63세로 작년9월 12차 전당대회서 中共黨중앙위원이됐으며 최고실력자인 副主席 鄧小平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民營航空총국은 국무원직속기관으로 1백30대의 항공기와 40여개의 비행장을 총괄하는 국영항공업무와 함께 中共의 항공정책을 결정하는 독립기관으로 센투는 차관급기술관리로 큰 힘을발휘하고있다.

센투는 지난 66년 中共측대표로 소련과의 민간항공협정을 개정했고, 프랑스와 항공협정을 체결할때 실무자였으며 73년 부국장으로 취임했다가 78년 총국장이된 항공업부의 베테랑으로 국제회의에도 여러번 대표단장을 맡은적이 있다.

센투의 학력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中國공산당혁명에 참가한 현지도부의 한사람이다. 한국의 교통부관계자나 항공관계자도 센투와는 접촉을 가져본적이없는 미지의 협상상대이다.

센투는 1m70㎝의 키에 혈색이 좋고 똥똥한 편으로 노련한 인상이다. 中共이 교섭단을 파견하며 이같은 거물급을 보낸 속사정이 가장 궁금한 일이다.

얼굴

鄧小平과도 가까운 사이인 黨중앙위원

盧瑞玲 中國民航總局 국제부장

우리대표와 舊面…사교적

中共교섭단의 실무진중의 한 사람인 盧瑞玲 中國 民航總局 국제부장은 우리대표인 金徹容항공국장과 구면인 사이다.

盧부장은 中共여객기의 한국비행정보구역통과를 합의했던 지난1월 싱가포르의 ICAO 亞太지역회의에서 金국장및 교통부관제통신과장 閔忠鎬씨와는 비행정보구역문제를놓고 대화가있었던 관계.

盧는 다른 중공대표와는 달리 매우 사교적이었는데, 회의가 끝나는날 閔과장과의 대화가 이번 사건으로 우연히맞아떨어져 교통부 안에서도 화제가된 사람.

파티석상에서 헤어지면서 閔과장은 『또보잔라고 말했는데 盧는『어디서 말이냐』라고 응답해 閔과장이 『서울이나 페이징(北京)』이라고 대답했다는것. 이때 盧는 서먹해하다가 이내표정을고치고 『그러길원한다』고웃었다고전했다.

서울 IPU에 PLO초청
아랍圈서 비상한 관심표시

【매내마=聯】아랍권 언론들은 5일과 6일 한국정부가 오는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초청한데 대해 비상한관심을 표시,이를 주요기사로 다루었다.

쿠웨이트국영통신(KUNA)은 5일 하오 콸라룸푸르 발신으로 한국정부가 PLO에 대해 서울IPU회의는 전세계 의회지도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이해시키기위한 좋은 기회라는 점을 지적,서울회의에 참석할것을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이통신은 한국정부의 초청이 콸라룸푸르에서 열리고있는 아시아지역 팔레스타인회의에 참석중인 吳世應정무제1장관에의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카타르통신(QNA)은 6일상오 다마스커스발신기사에서 한 PLO관리의말을인용, PLO가 서울IPU회의에 참석토록 초청됐음을 확인하고 PLO가 공식관계가 없는 한국으로부터 서울회의에 초청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매내마에서 청취된 이집트의 중동통신(MENE) 과튀니지통신(TUNA)은 QNA를 인용,한국의 PLO초청사실을 이날상오 보도했다.

中共機 불시착 美紙 대서특필

【워싱턴=李文熙특파원】미국의 주요신문들은 7일 중공여객기가 한국에 불시착한 사건을 사진과함께크게 보도했다. 또 미국의주요TV와 방송들도 한국의 한기지에 착륙해있는 中共여객기의 모습을 인공위성중계를통해 생생히 보도했다.

7일자 미국주요일간지들은 이 사건을 주요외신뉴스로 다루어 워싱턴·포스트지는 28면에 전면기사로 크게 보도했으며 뉴욕·타임즈지는 3면에 3단기사, 볼티모어·선지는 3면에 3단, 시카고·트리뷴지는 5면에 4단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또 로스앤젤레스·타임즈지와 로스앤젤레스·헤럴드지등은 모두 이 사건을 1면 4~5단 기사로 보도했으며 CBS·NBC·ABC TV등 美國內 3대TV방송과 로스앤젤레스의 5개 지방방송국들도위성중계로 이 사건을 보도하는등 깊은관심을보였다.

탑승자 자유선택을 臺灣의원들 촉구

【臺北=CNA=聯】자유중국의 국회의원들은 6일 한국정부에 대해 피납중공여객기 탑승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중국 국회 외교위원회 위원인 린·유·시앙의원은 한국정부에대해 1백5명의 승객과승무원중 어느누구라도 자유중국으로 가기를 원하면 인도적인견지에서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중국 국민당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인 첸·리안의원도 이날 한국정부에대해 여객기 탑승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도록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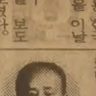
첸의원은 자유를 찾아나선 사람들을 후원해줄 경우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자유세계로 나서려는 중공 본토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중국 인권협회 회장인 한·리·우 박사도 중공여객기를 한국에 강제 착륙시킨 납치범 6명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도록 요구했다.

5·16民族賞 金準씨등 5명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7일 금년도 수상자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장 金準씨등 5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안보부문수상자는 없었다. 각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같다.

▲학술=故朴東吉(86세로 지난2월20일별세·前仁荷大명예교수) ▲예술=金東里(69·예술원회장) ▲교육=姜吉泰(62·順天大成학원이사장) ▲사회=金準(57·새마을지도자연수원장) ▲산업=李泰珍(50·한국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


◇故 朴東吉씨

◇金東里씨

◇姜吉泰씨

◇金 準씨

◇李泰珍씨

"協約대로 해주길" ICAO회장요청

【홍콩AP=聯】아사드·코타이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회장은 6일 중공여객기 납치사건을 ICAO 결의와 1970년 헤이그협약에 따라 처리해주도록 한국에 요청했다.

新華社통신은 코타이테회장이 이날 캐나다의몬트리올에있는ICAO본부에서 한국의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및교통부항공국장에게 이같은 전문을보냈다고 보도했다.

코타이테회장은 이 전문에서 『5일 납치범들에 의한 중공여객기의 불법납치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中共 언론기관 대대적인 보도

【東京=聯】중공당기관지 인민일보등 중공의 7일자 전 신문들은 沈圖중공민항국장의 訪韓등 서울에서 시작한 중공여객기와 관련한 기사들을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일본의 共同통신이 北京발로 전했다.

共同통신은 이날중공의 각 일간지및 라디오, TV들은 春川모기지에 불시착한 중공여객기의 승객및 승무원들이 춘천으로부터 서울로 이송됐다는 내용과 6명의 납치주역들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고 밝히고 특히 방송들은 시간마다 사태의 진전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중공측의 비행기피납사건과 관련한 관심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吳隣煥부장 歸社 美洲취재 마치고

본사 吳隣煥사회부장이 2주간에 걸친 美洲교포사회취재를 마치고 7일상오 귀사했다.

內外動靜

▲崔順達체신부장관은 미국과 멕시코의 통신현황을 돌아보고 기술도입과 국산전자부품의 수출등을 협의하기위해 7일상오 KAL편으로 출국.

人事異動

勞動部 ▲公報官직무대리 具然春 ▲총무과장 曺舜文 (9일자)

社說

韓·中共 첫 公式對坐
=平和 善隣에의 앞길 트이도록

여객기납치라는 하나의 사건이 뜻하지않았던 30년만의 드라마를 우리의 눈앞에 펼쳐놓고있다. 韓國을 떠나 이땅에 내린 1백2명의 중공인들은 강원도 원주로부터 고속도로를 달린끝에 서울에서 갖가지 새로운 체험을 하고있다. 총부리를 겨누고 이땅에 나타났던 30여년전의 중공군이 아니라 뜻하지않은 관광객이나 다름없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중공의 공식대표단이 보잉707기를몰고 김포공항을통해 들어왔고, 대한민국과 中華人民共和國대표로서 역사상 첫 공식회담을 가졌다.

발단은 여객기 납치라는 해프닝이었지만, 그결과는 休戰후 30년이라는 역사의 「축적」을 한꺼번에 노출시켰다고 할수있다. 말하자면 우연에서 시작돼서 외면할수없는 현실로 유도된셈이다.

그「현실」은 무엇보다도 중공내부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공의 화해에 이르기 까지 동북아를 둘러싼 광범한 힘의 구조와 풍토의 변화를 뜻한다.그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개인숭배와 봉쇄체제를 강요하고 있는 北韓의 「대결정책」으로 한반도에서만 유독 현실화되지못한 변화다.

5일하오2시넘어 트라이던트여객기가 휴전선의 기지에 불시착한뒤 우리정부서 취한 조치들은 그동안 우리가 밝혔던 이념을 넘어선 인도주의와 평화라는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대응이었다.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납치자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한편, 중공측의 직접교섭요청을 받아 들였다. 「적대행위를 하지않는 공산국」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에따른 조처였고, 또한 공중납치에 반대하는 헤이그협정등의 국제협약의정신을 존중한 조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것은 두나라사이에 첫 공식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나라는 처음으로 공식호칭을 서로 썼을뿐아니라, 중공대표단은 北京—서울사이를 平壤을 도외시한 노선을 따라 직접 날아왔다.

중공으로서는 여객기납치와 같은 해프닝이 없었던들 이렇게 쉽사리 실현할수 없는 현실의 긍정이요, 변화라고 할것이다. 개발도상국중 가장 성공적인 공업화 모델로 꼽히고 있고, 세계무역시장의 주요구성원인 대한민국을 시인하는 것은 어차피 시간의 문제에 지나지않다고 할수있다.

뿐만아니라 중공이 이념적대결보다 현실적 근대화를 추구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필요로 한다면 대한민국과의 공식접촉이 불가피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고깃배의 긴급피난이나 구조활동은 이미 서로 관혜가 돼왔다. 특히 우리의 제주도에는 중공고깃배의 긴급피난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게다가 東京—北京항공로가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지나게 돼있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올림픽의 서울개최로 두나라사이의접촉은 공식·비공식으로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두나라의 관계는 서로 이웃해있다는 어쩔수없는 지리적요건 때문이다. 그러한 지리적요건이 平壤側의 대결정책때문에 무한정 무시될수는 없을것이다.

물론 이번 두나라의 첫 공식대좌가 당장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할만한 근거는 아직 적다고 볼수밖에 없다. 납치항공기와 승객 그리고 납치자의 문제는 우리의 고유주권의 테두리안에서 국제협약과 인도주의원칙에따라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이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두나라 사이의 관계발전과 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라는 보다 커다란 안목에서 착안해야 될 일이다. 합리적인 현실인식이 쌓여 결국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체제구축이 벽돌장을 쌓아올리듯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늘어나게마련인 두나라의 공식·비공식접촉전망에 비추어 이번 납치여객기처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것이 확실하다. 고깃배나 항공기의 긴급피난뿐 아니라 그이상의 정상관계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이지역에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요건이다.

그것이 결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언젠가 있어야될 시도라면, 이번 우리의 인도적조처가 긍정적영향을 줄수 있을는지, 주목해야겠다.

잇단 北傀장교 歸順
—「힘들어 못사는」限界상황 實證

중공民航機사건의 화제가 그지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아침에는 北傀軍의 신중철대위가 楊口북방21㎞지점 비무장지대를 넘고 우리 품으로 귀순, 자유大韓의 훌륭한 면모가 더욱 실감나게 비쳐지고 있다.

국방당국발표에 의하면 신북괴군대위는 지뢰가 위험하게 깔린 비무장지대를 넘어온후 귀순제1聲으로 『北에서는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말했다는것이다. 이 첫마디는 『전쟁준비에 지친 北韓주민들이 한탄조로 전쟁이 일어나려면 빨리 일어나라고 자포자기한상태』라고, 앞서넘어온 북괴조종사 이웅평씨가 기자회견에서 털어놓은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먼저 그런 삶의 지옥을 과감하게 탈출한 신대위의 슬기와 용감성어린 의거를 높이 평가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는 근래 육로를통해 귀순한 북괴장병중 계급이 가장 높은편이다.또 이웅평조종사의 월남후 두달남짓해 맞은 자유의 선택자다.

북괴군장교들의 이같은 연쇄적인 탈출은 北韓사회가 限界상황에 처해 있는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70년대초부터 GNP (국민총생산) 의 20%이상을 군사비에 투입하여 전쟁준비에광분해온 北韓정치체제아래서 주민들이 심각한 고초를 겪고있을것은 뻔한 노릇이다. 또 그삶기어려운 極限狀況뿐아니라 이를은폐코자 안간힘을 다하는 저들의 폐쇄적 독재정치의 지배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것을 짐작케 한다.

이웅평용사의 장거에대한 의미심장한 국제적 평가는 그가 값비싼 미그19전투기를 南으로 몰고온것보다 한국전쟁이후 北韓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정예장교였다는 점에 있었다. 그들뒤이은 신대위의 귀순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그런 정예장교들세대마저 北韓지배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지경에 이른것을 감지케하는 때문이다. 金日成—金正日의 부자세습체제를 밀고가는것이 그지배자들과 직결된 젊은 정예세대에까지 불만과 좌절감을 그지없이 자아내게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세계는 지금 밝은정보사회시대를 살고있다. 그가운데서 몰도없는 폐쇄사회로 돼 있는 北韓이 아무리 국제사회 정보를 차단하려고 모진힘을 다해도 전파를 타는 세계뉴스의 흐름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두용사의 귀순은 이를 실증하고 남는다.

우리는 요즘처럼 잇단 귀순에서 드러난 개방적인 韓國사회의 우수성에 만족하기보다는 한걸음 나아가 韓半島주변에 착잡하게 전개되어 가는 최근정세와 난처해진 북한집단의 종말적 동향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같다.

北韓은 한국이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회복함에따라 한국과의 국력격차가 보다 크게 벌어질것을 우려할게 분명하다. 그런나머지 그들의 호전성을 다시 드러낼 가능성이 증대되어 간다고 일부 한반도문제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우리는 더한층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저들의 모험주의적 호전성에 대비하는바 있어야겠다.

政局往來

要人 포함돼있는지도…

中共여객기被拉사건은 發生3일째인 7일엔 中共의 공식送還교섭단이 入國,韓·中共정부관리들이 對坐한 회담에따라 사건은 외교적차원으로 발전된셈.

정부대변인役을 맡고있는 許文道문공차관은 오전10시 이사건과 관련, 3차발표를통해 中共의 센투(沈圖)民航총국장을 대표로하는 교섭단일행의 入國사실을발표하고 교섭단의 訪韓교섭경위와 교섭단용의 비행경로, 訪韓교섭단의구성, 교섭단의 체재중편의제공 사실을 설명.

한편 정부의 한관계자는 『이번사건의 처리에있어서 가장핵심적인부분은 拉致犯들의 처리문제』라면서 국제관례에 따라 국내법을적용, 처벌한후 그때가서 처리문제를 협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사건직후 中共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送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승객중에 要人이 포함돼 있는지 모른다는 점과 이사건이中共에서 이루어진 첫 항공기被拉사건이기 때문에 再發을 예방하는 布石인 것같다고 분석하기도.

정치외교 知慧총동원

中共대표단을 맞아 被拉機에대한 韓·中共간의 첫협상이 시작된 7일 각정당은 협상진전과정을 注視하면서 양국간에 모두 유감없는 만족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희망.

民正黨은 이날 다른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權翊鉉사무총장 金泰秀대변인등이 중앙정치원 수료식에 참석하는등 평상시와 다름없는 週末의 일과를 보냈는데 金대변인은 『우리대표단이잘해줄것으로 믿는다』면서 논평은 삼가는등 신중한태도.

"납치범天國 되어서도 안되고 人道主義 저버려서도 안돼"

奉斗玩국회외무위원장은 『韓·中共간의 직접협상이 이뤄진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것』이라면서 『국제관례에 따라 어느쪽에도 무리가 없는 결론이 나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民韓黨의 辛相佑부총재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납치범의 天國으로 誤認돼서는 아니되지만 그렇다고 人道主義를 저버리는 나라가 되어서도 아니된다』면서 『정치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해 해결책을 강구할것』을촉구。

또한 金文元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中共의 대표단 파견이 韓半島문제를 당사국들끼리 다시한번 협상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는다』면서 정부의 입국 허용 방침을 환영했다.

그는이어 『이 기회에 中共당국은 우리정부와 진지한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바란다』면서 『우리는 이념이나 체제적 차원을 떠나 국제적 통념에어울리는 상응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

一定기간 시행해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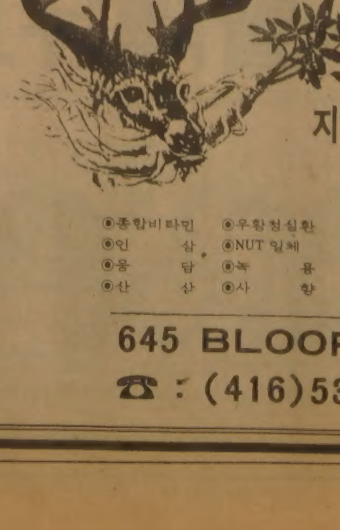
民正黨의 鄭石謨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법개정문제등 정치의안과관련, 정치법안이건 일반법안이건 일단 제정이되면 一定期間 시행해본뒤 불합리한 점이나 미진한점을 모아서 한꺼번에 개정해야한다고 강조.

그는이어 「一定기간」의 의미에 대해 『3~4년은 되어야 하지않느냐』면서 『지난 1백16회 임시국회때 適法性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국무위원 해임권고 결의안처럼 국회법상에 미흡한점도있었으나 그렇다고 개정을 서두를수야 없지 않느냐』고 反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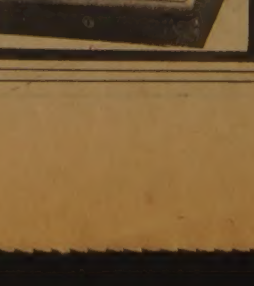
SANYO 전자계산기
전자저울

□저렴한 가격
□각종 신품과 중고품
$295로부터
AKRON CASH REGISTER
248 Browns Line
Toronto, Ontario
(416) 251-7054 M8W 3T4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UP을 컴퓨터—씨스템(SCOPE)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W
(크리스티×블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특별세일
지방문의환영
⊙관절염 특효약
⊙산삼 도착
⊙자동전자약탕기
◉종합비타민 ◉우황청심환 ◉홍삼 ◉간장병
◉인삼 ◉NUT 일체 ◉보약 ◉비만증 ◉부인병
◉웅담 ◉녹용 ◉중풍 ◉신경통 ◉양기부족
◉산삼 ◉사향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645 BLOOR ST.W.TORONTO
☎:(416)530—0522, 530—4900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캬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 성 수

韓·中共관계 轉換點 계기

—北京대표단 入京… 서울 직접對坐의 背景

準閣僚級보내 非政治문제 對話길 터

緊密化기대는 성급… 異見조정이 문제

中共여객기의 被拉사건으로 인한 韓·中共간의 직접교섭은 양국관계발전의 轉換點이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돌발사건에 의한 양측 對坐가 未修交상태인 양국관계를 긴밀화 내지는 궁극적으로 修交관계로 까지발전시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접촉은 지난 49년 中共정권이 수립된이후 한국과 中共이 처음으로 공식접촉을, 그것도 센투(沈圖) 民航총국장등中共대표단33명이 入國, 서울에서회담을갖는다는점에서 매우중요한 의의를지니고있다고 볼수있다. 특히 6·25때 中共이 北傀를지원, 지금까지 우리와는 敵對的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서울 對坐는 더구나 第3國의주선이없이 양국의 직접교섭에의해 회담으로까지 成事시킨것은 양국관계 개선에 중대한 進展임에틀림없다.

이날 許文道 文公차관이 中共대표단의 訪韓을 발표할 때 「中華人民共和國」이란 호칭을 사용한것도의의가 깊다. 정부당국자는 이에 대한 배경설명에서 『中共측이6일 우리나라에 보낸 電文에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에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것』이라고 밝혔다.

中共이 「대한민국」이라 부른것이나 우리가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호칭을 사용한것은 서로 상대방을 정중히 대접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國名호칭문제에 있어 中共측은 지금까지 국제회의에서 「사우드·코리아」(南韓)또는 「소위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가 對外的으로 내세우는 「대한민국」이란호칭을 의식적으로 피해왔으며 中共의 신문들도 우리나라를 지칭할때 「南朝鮮」이라고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왔다.

우리나라역시 中共을 敵對視하여 그들의 對外호칭인 中華人民共和國대신 中共으로만 불러왔는데 지난 73년 「외무부가 中共측과의 자원탐사문제를 협의할 용의가있다」는 성명을발표할때 「中華人民共和國」이란 용어를 사용한적이있다.

이번에 訪韓한 센투국장은 中共항공분야의 최고결정권자로 우리나라 직급으로 따진다면 「廳長」 즉 準閣僚級이라고 할수있다.

中共측이이번에準閣僚級을 단장으로한 실무자들을 우리나라에 파견, 직접교섭에 응하도록한것은 中共이 사실상 한국을 국제법상의교섭대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하는것이다.

지난해 9월 金日成이北京을 방문했을때 나온 鄧小平—金日成 共同성명은 『북한이 「韓半島」의 유일한 정부』라고 못박아中共이 우리나라를 국가로서 인정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있다.

따라서 中共이 우리나라를 국제법상의 교섭대상으로 인정했다고 하여 한국을 국가로 승인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단 은 承認의 첫길은 디딘셈이다.

양국의 이번 직접접촉은 속셈이 서로 다를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政策의하나로 中共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접촉으로 中共과의 직접대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할것이며 中共측은 비행기 被拉사건의 해결을위한 순수한 교섭으로 국한시키겠다는 의도만 가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사건이 韓中간의 직접대화를 실현시키는 계기가됐고 이것이 先例가되어 앞으로항공및 海難사고, 大陸棚탐사등 양국의 이해관계가얽힌 특수문제나 특정분야의 기술적인 문제협의를 위해선 직접교섭이 이뤄질수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수있다.

여태껏 中共은 북한과의 관계를고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선 우리나라에 냉담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非정치적인 분야, 즉 海難사고라든가 학술문화교류 인사교류 교역문제등에 있어선 비우호적인것만도아니었다. 그예는 많다.

73년 小黑山島 근해에서 우리어선이 中共의 遭難어부80명을 구조해준이후 中共의 경비정과 유조선 어선등이 우리나라선원들을 수없이 구조해왔다. 최근에도 中共어선들이 濟州와 黑山島에 긴급 피난해왔을 때 우리나라에선 물과 식량을 제공했다.

또 中共측은 우리어선이 피난할때도 도움을주었다. 中共측은 일본 정치인들이 中共을 방문할때 이따금 우리측의 해난협조에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온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술·문화교류면에선 74년 高麗大學부설 아시아문제연구소가 中共의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학술기관에 우리나라도서자료를 보낸후 中共측에서도 교환가능도서목록과 毛澤東詩選集등을 보내오기도 했다.

또 인사교류면에선 80년이후 23명의 한국인이 스포츠, 사업, 친척방문등의 목적으로 中共을 방문한적이 있고 中共측에선 74년 張立群씨 (당시28세) 부부가 통과여객으로 우리나라에 12시간 체류한 이후 中共외항선 선원들이 여러차례 入國사실이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81년이후 中共의 관리와 학자등 11명이 국제회의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것으로조사됐다.

한편 交易면에선 76년부터 간접교역이 이루어져 外信에의하면 80년에는 양국간접交易量이 6억달러에 이르기까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측의 이같은 對韓開放정책에 북한이 불만을표시해 최근의 양국교역량은 크게 줄어들었고 中共의 對韓자세는 다시 냉각됐으며 작년 金日成의 北京방문을 전후하여 中共과북한은 蜜月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中共이 이번 사건에 직접 교섭을 제의하고 나선것은 意外라면 의외라고 할수있다.

한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中共은 自國의 現代化계획을 위해 한반도, 中蘇국경, 베트남등 주변지역의 분쟁을 원치않고 있으며 북한의 불장난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金日成·金正日世襲체제까지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소식통은 中共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사건처리도 국제항공기구(ICAO)나 제3국을 개입시켜 해결해야할 처지이지만 직접 발벗고 나선것은 自國의 實用정책을위해선 지금까지의 「눈가리고 아웅」式 對韓자세를탈피하겠다는 태도변화일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와 中共간에는 그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위에서든 예처럼 몇몇 분야에선 실질적인 관계가 유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직접대화는 양국의 접촉을보다 자연스럽게 만드는 돌파구가 될것임엔 틀림없다.

우리측은 이번 訪韓허락을 理念을 초월한 人道主義에 있음을 뚜렷이 하고 있어 납치범들에대한 人權도 고려해야하는 입장에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그러나 이번사건처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임을 명백히 하고있다. 이같은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협력상대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되는 것이며 특히 中共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문제해결에있어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도록할빛을지어주었다고할수있다.

韓·中共간에 상호존중 자세가 확립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사건에서 우리는 하나의 수확을 얻는 셈이다. 【李在武기자】

◇표정은 다소굳은 양측代表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공식對坐한 韓·中共대표단。新羅호텔 영빈관에서 對坐, 中共 여객기피납사건과 관련한 직접교섭을 벌인 양측대표들의 표정은 다소 굳어있으나 회담장은 韓·中共관계의 새로운 轉機를 여는 현장감으로 가득했다。

國際航路따라 3시간30분 비행

—中共교섭단 서울에 오기까지

中共측 협상대표단이 탑승한 中共항공기의 비행항로는 우리비행정보구역을 우회하여 上海—가고시마를 잇는 국제항로를탄후 다시 濟州남방 한국비행정보구역을 타고 올라왔다는 점에서주목을 끌고있다.

中國民航총국 (CAAC) 소속 보잉 707기는 이날 北京—上海—아카라 (AKARA·북위31도30분·동경1백23도30분)—아피토(APITO·북위29도35분·동경1백24도)—아토티(ATOTI·북위30도·동경1백25도12분)—B76—濟州—B86—金浦공항의 비행코스를 타고왔다.

國交없어 신중한 접촉보여

直路「北京→서울」利用않고

中共대표단이 이렇게 2시간 거리인 北京—서울 직선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먼거리를 우회한것은 물론 한국과 中共과의 국교가 트이지않아비행항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北京측이 국제항로를 준수하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것.

中共측은 협상을 요청하는 전문에서 국제노선으로 上海를거쳐 아피토 (APITO) 지점에서 우리동남아항공노선을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측에서는 공식항로는 아니지만 北京—金浦의 직선항로를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항로를개방했던것으로 알려졌다.

中共측이 이용한 北京—上海—APITO를잇는국제항로는72년 닉슨美대통령이 東京을거쳐 北京을 갈때 이용했다해서 닉슨루트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이날 中共대표단은 우리측에 北京—서울직행노선을 타진해보지도않고 국제항로를 이용함으로써 양국의 접촉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1월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한국 中共 일본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東京—上海를잇는 직선항로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역시 우리측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이 항로가 정식으로 이용되지 않는 점을감안, 종래의 국제항로를 끝까지 이용한것으로 보인다.

濟州—대만으로 이어지는 정기항로인 B76에 들어서기위해 국제항로로 우회하느라 비행시간이 1시간30분이나 더소비했다.

항로상에 표시된 아카라·아피토·아토티는 항공기가 해당지점에 이르면 관할 관제소에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강제보고지점으로 아피토는 中共비행정보구역과 한국(大邱) 비행정보구역이 맞닿는지점이다.

항공기가 이지역에 이르자 中共관제소에서는 우리 大邱관제소에교신, 항공기의 관제를 넘겨주어 이후 濟州—光州—群山—金浦까지는 大邱 관제소의 유도로 입국했다.

메아리

沈阳

피납된 中共여객기의 機長이 직접 자기손으로 그린 航路 약도를보면 출발지가 「沈阳」이다. 설명없이는 전혀 무어라고 읽는지 어느 地名인지를 알수가 없다. 沈字는 우리가 沈淸의 이름으로 아는 글자라하더라도 그밑의 글자는 대관절 무어라고 발음해야하는가. 같은 漢字語圈이면서도 우리는 이런 낯선 漢字앞에 당혹하게 된다. 알고보면 이것은 「瀋陽」의 略字다. 沈字조차도 正字가 아니다. 正字라면 우리나라에는 沈을姓氏외에는 「침」이라고 읽으니 「침양」이라는 발음이 나와야 옳은데 瀋陽은 「심양」이다. 두 글자중 한字만 낯선줄 알았더니 결국은 두字 모두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瀋陽이라는 地名만 해도 그냥 이름만 대어가지고는 이곳이 中共땅의 어디쯤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않을것이다. 대신 舊名이 奉天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않을것같다. 2차대전때까지만 해도 奉天은 滿洲國 제일의 도시였다. 滿洲事變의 도화선이 된 柳條溝사건이 奉天근교에서 일어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전이 끝나면서 滿洲國이 붕괴됨에 따라 奉天은 元朝때의 이름인 瀋陽으로 돌아갔다. 瀋陽이 되면서부터 이 도시는 우리와 인연이 끊겼고 그래서 그 이름이 서먹하다.

漢字문제에 있어서는 中共이 略字化운동을 벌여왔다는것은 우리도 들어온 바지만 막상 글자로 대면할기회는 좀처럼 없었다.

중국 漢字의총수는 약6만자로 그가운데 中共에서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는것은 약6천자요 3천자를 알면 신문·잡지를 대체로 읽을수 있다고 한다. 字數가 많고 모양도 까다로운 漢字가 중국의격조높은 문화를 이루어온것은 사실이지만 中共이 소위 사회주의 건설을하는 마당에서는 漢字를 대중화시키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中共은 「漢字運動」을벌여 漢字의 簡略化와 常用漢字數의 감소를 추진했다. 1956년 國務院은「漢字簡略化方針」을 공표했고 1964년에는 常用簡略字 2, 238字의 「簡略化總表」를 출판했다. 同音同義의 異字體도 폐지되었다. 이래서 文盲퇴치는 하루에 1백字를 외게하는 「突擊識字」란 速成法이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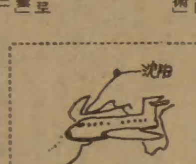
漢字의 略字化는 같은 漢字圈에서도 中共다르고 日本다르다. 우리는日本式 略字를주로쓰고있다. 가령「藝術」의 藝字를 日本이나 우리는 「芸」로 쓰고있지만 이글자가 中共에서는「艺」의 略字가된다. 「芸術」은 「운술」이라고 읽어져야옳다. 「國」字는 中共이나 日本이나 우리가 모두 略字를 「国」으로 적는다. 처음에는 中共이나 일본이나 대중들이 「囯」으로 써오던것을 「口」속에 「王」을 두는것은 시대에뒤떨어진다하여 「玉」을 집어넣었고 이것은 나라끼리 서로 의논한것이 아닌데도 우연히 略字化가 일치된 경우다.

한때 中共에서는 文字는表音化되어야한다는 毛澤東의주장에따라 漢字를 라틴 문자로 표기하는것이 유행하여 漢字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사람들까지 생겼으나, 簡略化운동으로 대중에게 漢字가 많이보급됨으로써 漢字는 死滅의위기를 넘겼다. 그대신 瀋陽이 「沈阳」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被拉機사건을 계기로 中共의 공식 대표단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옴으로써 그동안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있었던 두나라의 거리가 새삼 실감으로 느껴진다.

사실 우리는 中共과 너무 단절되어 있었다. 역사적 운명이라고는 하더라도 漢字가 상징하는 두나라사이의 文化的 共感帶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단절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漢字가 略字가 되면서 달라지듯이 어느새 거리가벌어져가고 있다.

중국대륙은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외국땅이다. 좋든 나쁘든 그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中共과의 지금까지의 거리는 이런 역사적 관계에 대한 외면이었다. 바로 쳐다보면 광대한 땅과 10억의 인구와 5천년의 역사를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이웃에 있다. 그런데도 이 가장 크고 가까운 이웃이 너무 멀다. 中共은 「沈阳」두字처럼 낯선 나라가 되었다. 같은 漢字文化圈이라하여 잘아는것 같으면서 실은잘모른다. 沈阳을 뭐라고 읽어야할지, 이地名이 어딘지를 모를만큼 두나라 사이는 멀어져있다. 한때는 가장 가깝던 두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역사는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金聖佑 【編輯委員】

記者의 눈

서울의 中共人

최근 수일 사이에 中共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나타났다. 두대의 여객기로 中共땅에서 곧장한국땅으로 날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생생한 모습이 신문과 텔리비전畵面을 통해 우리들에게이웃처럼 클로즈업되고 있다.

우리는 안방까지 다가온낯선 이들의 출현에착잡한 심정이다.

세상이 많이도 변했다는 생각도 들고, 저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被拉여객기의 不時着은 突發事라 하더라도中共정부 대표단이 北京에서 비행기로直行하여 서울에 도착한것은 상상조차 할수없는 일이었다.

金浦공항에 내린 中共人이 온국민이 지켜보는 TV화면을 통해 버젓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누가 想像이나 했을것인가.

더구나 한국측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이라고 그들의 정식 국가호칭을 불러주는가하면 그들역시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라고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대륙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에 어리둥절해질따름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中共과 中共사람들은 한국전쟁당시 北傀를도와 함께 南侵해온 敵性國으로 지금까지 직접대화를 나눠본일이 없는 공산국 사람들이라는것이다.

그뒤 美·中共, 日·中共의 和解에 따라 中共에 대한 이미지가 解氷의 主役처럼 상당히 바뀌어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에 나타난 中山服차림의 中共사람들을보고 문득 6·25의惡夢의 기억을 되살리는사람들도 많은것같다.

서울에 나타난中共사람들은여러가지모습이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敵性국가이자 공산국인 동시에 국가이익이라는측면에서 추구되어야할 和解의 대상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관계개선을 해야할 상대이기때문에 好意를 베푸는것도 당연하리라는 생각도 든다.

주권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의연하게 대함으로써 그들도 한국과 한국사람들을 다시보게 될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鐵壁으로 가리워졌던 韓·中共관계에 변화는 시작된만큼 우리는 이 變化를 국제적 善隣과 한반도평화를위한 밀거름으로 활용하는 叡智를 가져야할것같다. 【黃昭雄정치부차장대우】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금주의 새 리스팅

●버라이어티 스토아

◉Variety Store

(1)주매상 9,000 asking 110,000+stock(이헌영) D/P 75,000

(2)주매상 14,500 asking 200,000+stock(이헌영)

(3)주매상 14,000 asking 200,000+stock(이헌영)

(4)주매상 9,000 asking 70,000+stock(이헌영)

(5)주매상 14,000 asking 250,000(황용현)

◉Tuck Shop

(1)Good Potential, Subway, Condom근처 askig 35,900(유웅복)

(2)미시사가에 있는 주매상 2,500 askig 25,000 (좋은 lease와 rent 조건)(임윤식)

◉Gift Shop

(1)big mall에 들어있는 asking 159,000(이헌영)

(2)연매상 473,000 asking 159,000(이헌영)

◉Variety & Grocery Store

(1)주매상 8,000 asking 93,000(황용현)

(2)주매상 9,000(브림톤에 있음) 리스4년 포스트오피스 있음, 렌트 900,00(임윤식)

◉Discount Store

(1)주매상 6,500(주6일및 좋은 렌트)(토론토)(임윤식)

(2)주매상 5,700(주6일) asking 79,000(임윤식) (시외 1시간거리)(Store의 건물까지도 매입가능)

◉Dry Cleaner

(1)주매상 $1,800, Asking $69,000(황용현)

(2)아파트 밀집지역 프랜트와함께 연매상 $240,000, Asking $189,000(유웅복)

◉Donut Shop

(1)주매상 6,500 asking 275,000 50% D/P Good—location lease 10/10years(유웅복)

(2)주매상 4,000 asking 117,000(유웅복)

(3)Donut 및 햄버거 Shop 주매상 6,000+Video인컴 4,000(월)보장 asking 215,000, D/P 50,000(황용현)

◉VIDEO ARCADE(Plaza내에 있는 좋은 조건) 28개 Game 기계 asking 85,000(유웅복)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re에 있는) 주매상 $8,000 asking 279,000(황용현)

◉투자용건물

(1)프라자(4개의 스토어를 갖인) asking 525,000 D/P 120,000(이헌영)

(2)Chicken & Mac's가 있는 Plaza asking 625,000 D/P 200,000(이헌영)

(3)Shopping Plaza 스토어 5개 Net lease 년수입 52,000 asking 570,000(황용현)

(4)Shopping Plaza 년수입 300,000 asking 3,000,000(황용현)

(5)2 Stores+2 Apts Corner Building Near Eaton Centre 80,000 다운 asking $279,000(황용현)

(6)버라이어티와 그로서리가게 딸린 건물, 주매상 4천5백, Appraisal 가격으로 함, 다운 $35,000(유웅복)

(7)버라이어티스토아 딸린 건물, 주매상 $4,000, Asking $115,000, 다운 $77,000(유웅복)

주택상담실 설치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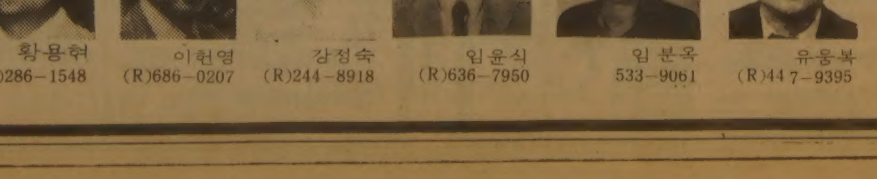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황용현 (R)286-1548 | 이헌영 (R)686-0207 | 강정숙 (R)244-8918 | 임윤식 (R)636-7950 | 임분옥 533-9061 | 유웅복 (R)447-9395

「金浦의門」열고온 中共대표단

하오 늦게 오찬들며 兩側 예비회담

"寫眞 많이 찍어달라" 여유보여

"北京서 바로 왔으면 더빨랐을텐데…" 沈圖대표

중공민항총국의 沈圖국장은 낮12시42분께 공항귀빈 1호실에도착, 기다리고 있던 한국측수석대표인 孔魯明 외무차관보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을 가진뒤 곧이어 기자회견에 응했다. 孔차관보와 사이드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沈국장은 사진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자 미소를 지으며 중공에서 데리고온 통역을 통해 『시간이 있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많이 찍게하라』고 말했는데 통역이 『이분들은 시간이 많아 사진을 많이 찍을수 있다고한다』고 전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沈국장은 시종 여유있는 모습으로 간간이 미소를짓기도 했으나 피납여객기와 승객들의 처리에관한 중공측의 기본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특히 『납치범들은 폭도이며 중공측이 체포하려는 범법자들』이라고 말할때엔 단호한 어조였다.

沈국장은 회색중산복과 흰와이셔츠 차림이었는데 중산복상의는 단추가 5개로 돼있는 칼러가있는 목부분까지 단추로채우게 돼있었고 옷감은 다른수행원들에비해 비교적 고급스러워 보였다.

한편통역원蔣正才씨(48)는 자신이 중국민항총국 소속통역이라고 신분을밝혔다. 통역은 「工作記本」이란 제목이쓰인 푸른색비닐커버의노트에 메모를하며 통역을했는데 沈국장의 나이를묻는기자들의질문엔『알아맞혀보라』고 농담을하기도했다.

이날 셴투총국장은 공항에 도착, 金徹洛교통부항공국장으로부터 『北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반이 걸렸읍니다』며 첫인사를 건넨뒤 『北京에서 서울까지 바로 올수만 있다면 짧은거리인데 왜 돌아와야하는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鍾路거쳐 호텔로

기자회견을 마친 沈국장은 하오1시3분께 귀빈1호실을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빈실출구를통해 대기중이던 서울1가6873호 벤츠280승용차에 孔魯明외무부차관보와 金徹洛교통부항공국장이 동승, 경찰백차의 선도를 받으며 호텔新羅로 향했다.

沈圖 중공민항총국장이 金浦공항 3층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사이 나머지 대표단8명은 일반CIQ에서 입국수속을 끝내고 하오1시13분 청사 밖으로 나와 서울 1다7832호 자주색 레코드로열등 4대의 승용차에 2명씩분승, 金浦가도, 汝矣島5·16광장, 麻浦, 鍾路를 거쳐 호텔新羅까지 가는 동안 대표단은 시종 차창밖으로 시선을돌린채 앞자리에탄 여자 통역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에 바빴다.

"記者들 수고많다"

이날 金浦공항에서 호텔신라로 가던중 孔차관보는 沈총국장에게 『이곳이 전에는 섬이었는데 빌딩이 이렇게섰다』고 말하자 沈총국장은 『그러냐』며 관심을 보였고 자신은 한국방문이 처음이라고 했다.

승용차내에서 沈국장은 피납기 승객및 승무원의안전에대해 큰관심을 보였는데 『부상자가 어느병원에서 치료를 받는지』『신변보호는 어떻게 하는지』등에대해 여러차례 물었다.

"한국訪問은 처음"

양측대표단은 7일 하오 2시37분부터 약 1시간가량 각각 통역 1명씩을 대동, 호텔新羅23층 콘티넨탈 스카이라운지 백합홀에서 프랑스식 오찬을 들며 예비회담을 가졌다.

이날 예비회담에는 우리측에서 孔魯明 외무부차관보와 金徹洛교통부 항공관리국장, 金炳連외무부아주국장등이, 중공측에서는 대표 沈圖씨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메뉴는 3만5천원짜리 스페셜B로 안심스테이크를 주식으로하고 섬게알무쓰, 조개살과 차가운 콘소메거위간수프,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딸기샤롯, 코피, 홍차, 불란서 쿠키등이 준비됐다.

중공대표들은 식사를 하며 『요리가 맛있다』『고기가 부드럽다』는등의 칭찬을했다.

식사시중을 들었던 호텔종업원이 『쎄쎄』(고맙다는 중국말)하고 인사를하자 중공측대표들도 역시 『쎄쎄』하며 답례했으며 보도진이 플래시를 터뜨리자 키가작은 한중공대표는 『우리들은 배불리 먹었는데 기자선생님들은 먹지도 못하고 사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며 유창하게 우리말로 얘기했다.

이날 회담에서 孔차관보는 중공측에 『여러분들이 제의한대로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승무원, 승객들이 투숙한 쉐라톤워커힐 호텔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호텔 방이 좁다"

한편 孔魯明외무차관보는 1차회담을 끝낸뒤 『중공측이 만만치않게 나오고있다』고 밝히고 중공대표단이 방이 좁다고 말해 20층에 있는 로열·슈트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中共측, 워커힐들러

한편 중공대표단은 쉐라톤워커힐호텔에들러 피납여객기의 승무원과 승객들을 만난뒤 하오8시 코리아하우스에서 저녁식사를 할예정이다.

이날 중공교섭대표단이 타고온 B707기의 기장은 李學忠(42)이며, 함께온 승무원가운데는 피납기를조종하고갈기장白景憐여자승무원彭僧寶(29)金英花양(24)등이포함돼있다.

負傷승무원 만나

중공대표단은 이날 하오4시45분께 승무원 2명이 입원한 병원에 도착, 병원관계자 안내로항법사 王培富씨(25) 무선사 王永昌씨(22)등을 위문했다. 이들은 이어 하오5시18분께 병원장실에서 10분간 환담했는데 『환자들을친절히보살펴줘 고맙다』고 말했다.

◇負傷항법사 위문하는 沈圖총국장 중공대표단의 沈圖총국장이 총상을입고 병원에 입원해있는 피납기의 王培富항법사를 찾아 위문하고있다.

이레적…機內 입국사열

전용기入口 모두 잠궈

입국스케치

중공교섭 대표단을태운 비행기는 중공민영 항공사(CAAC)의 업무용특별전용기로 일반여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것. 미국보잉사 제품의 보잉707기로 1백80인승.

이비행기는 이날낮12시30분정각에 착륙했는데 우리공군 팬텀기의 호위를받았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출입국관리 사열관 5명이 비행기안으로 들어가 입국사열을 시작했는데 기내에서 입국사열을 한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공측은 『급유는 받지않겠다』고 말한뒤 자신들이 기내청소를 끝마친뒤 비행기의 모든출입구를 자물쇠로 채웠다.

한편 세관검사대에서 체크된 대표단의 짐속에는 카메라 타이프라이터 소형녹음기 구급약이있고 심지어 스푼 포크등 식기류까지 있었다.

호텔신라로비

호텔신라측은 이날 통역을위해 화교인 호텔직원 10명을 대기시켜놨으며 대표단이 묵을방은 8·5평크기에 하루 84달러짜리로알려졌다.

회의실주변

7일하오 양측대표단 회의가 열린 호텔新羅 영빈관 루비(RUBY)룸은 67평규모에 1백명을 수용할수있는방. 외부와의 직통전화 2대등 전화4대와 전동타자기2대, 전자복사기 2대등이 설치됐다.

中國民航 여객기機長은 2명

나이적은 和長林이 上級인듯

中國民航여객기의 王以軒(43) 和長林(33) 두조종사중 당초 기장으로알려진 王과는 달리 나이가 어린 和가 더 실력자이며 승무원들을 엄격하게 지휘감독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두사람은 모두 소매끝에 여객기의 캡틴(기장)표시인 4개의 금줄무늬를 달고있는데 승무원들은 불시착이후 모든행동에 항상 和의눈치를 살폈고 和는 특히 카메라 플래시를 기피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승무원들은 식사할때나 자리를뜰때, 또 신문에 대답할때도 和의 눈짓이나 지시에따라 움직이고있어 관계자들은 和가 공산당의 기내책임자인것으로 보고있다.

품질·판매고 세계1위
미쉐린 타이어

中共교섭단 專用機에 한국出身 스튜어디스

金英花양 "날씨 참 좋아요" 밝은 미소

중공교섭대표단이 타고온 중공민항 소속 특별전용기에는 스튜어디스 2명이 탑승했는데 이가운데 1명은 뜻밖에도 한국인이었다.

어딘지모르게 「한국인」의 체취가 물씬풍겨 기자가 한국말로 『참이쁘다』고 말을건네자 그녀는 대뜸 『고맙습니다』라고 또렷한 한국말로 대답했다.

자신의 이름을 金英花(24)라고 밝힌 그녀는 1백65㎝의 알맞은키에 날씬한몸매.

대표단이 기내에서 빠져나온뒤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그녀는 약간 수줍음을 타는 태도마저보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북녘여인상을 빼 놓은듯 했다.

金양의 얼굴은 약간 갸름한편으로 눈은 쌍꺼풀이 졌고 비스듬히 앞가르마를 탄 긴머리는 알맞게웨이브가 져있었다.

특히 몸에달라붙은 푸른색 유니폼이 배꽃처럼 흰 얼굴에 잘어울렸다.

金양은 자신이 한국계중공인이라고 밝힌뒤 이름을 묻자 『金英花예요, 나이는 스물넷입니다』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金양과 대화를 하는사이 승무원일행중 한사람이 통역을통해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우리항공사에서 제일」이라고 그녀를 추켜세웠다. 金양은 중공민항(CAAC)소속의 여승무원가운데 몇안되는 VIP담당스튜어디스라는것.

金양은 비행기트랩을 내리다 승무원용모자가 바람에날려 떨어지는것을 金浦공항직원이 얼른 집어건네자 확하게미소지으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고 KAL 직원이가방을 대신 들어주려고하자 『괜찮읍니다』라고 사양하기도했다.

金양의 한국말액센트는 아주 정확했지만 가끔중국어식의 억양이튀어나왔다.

金양은 한국말은 北京대학의 朝鮮語科에서 배웠다고 말하고 고향은북한이라고 밝히면서 출생지를묻자 『더자세히 물으면 말이서툴러서 대답할수가 없다』고 재치있게대답을피했다. 생년월일은 1959년 12월8일생이라고.

金양은 함께온 승무원일행과섞여 입국수속을 밟는도중 다른승무원들은 별표정을 나타내지않았지만 金양만은 시종환한 미소를잃지않았다.

金양은 『北京을 출발할때는 잔뜩 찌푸리고 비도내려 날씨가좋지않았는데 서울은 날씨도 참좋다』고 화제를 옮기면서 일행과함께 총총걸음으로 버스에올랐다.

◇"고맙습니다"… 우리말도 또렷 중공대표단을 시중, 서울에온 북한출신의 스튜어디스 金英花양. 북녘땅의 전형적인 미인이었다.

불시착한 中國民航소속 여객기

機體완전… 離陸가능

합동조사팀 點檢

불시착한 中國民航소속 트라이던트기는 자체중량을 최소로 줄일경우 이륙이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

이 여객기의 상태를 정밀점검하고있는 교통부·공군·대한항공 합동조사팀은 7일 1차점검결과 이착륙에 지장이있을만큼 바퀴가 파손되지않았고 기체도 온전하다는 결론을내리고 이비행기를 다른공항으로 옮기기위한 30분거리 비행정도라면 이륙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트라이던트의 이륙 활주로 길이는 2천8백m로불시착 여객기가 위치한 공항활주로보다 훨씬 길지만 좌석등 내부장식을 떼어내고 연료를 최소한도로 탑재할경우 정상 이륙활주로의 절반정도면 이륙이가능하다는 기술적 분석이나오고 있다.

트라이던트의 최대이륙 중량은 9만파운드인데 자체무게가 7만파운드로 30분 비행을하기위해서는 1만파운드의 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조사팀은 기체를 해체해서 다른공항으로 이동한후 다시 조립시키는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기체해체방법은 엔진·날개·동체를 따로 분리하는방법이 있는데 시간과경비가 엄청나게 든다. 그러나 한국에는 트라이던트기종이 없기때문에 이륙여부는이번교섭단과 함께온中共기술진의조사후 결론이 나올것으로보인다.

장벽

臺灣「聯合報」朱立熙기자

"그들은 이미 「大陸人」이 아니었다"

중공여객기의 불시착사건은 한국과 중공의 관계자들을 바삐돌아가게 만들었지만 덩달아 바빠진 쪽이 대만이다. 불시착첫날부터 주한대사관의 직원이 중부전선현지로 달려가고 대만에서 기자들이 특파되어오는등 그들의관심의 밀도는 짙기만하다.

6일 하오 한국에 온 대만聯合報 朱立熙기자(29·사진)에게서는 큰사건을 취재하는 기자특유의 「신바람」을 찾아볼수없었다. 오히려 『남의 나라에 뜻밖의 사건으로 찾아든 동포를 만나 취재하려니…』하며 말끝을 흐렸다. 비애감 같은것이 그의 말에서 느껴졌다.

朱씨는 중공여객기가 불시착한 20분뒤 집에서 전화로 이사실을 연락받았다. 밤새도록 한국경제관계책을 번역하고 막 잠이들참이었다. 가슴이 두근 두근 했다.

한국특파원등 기자생활 7년동안에 이런사건은 처음이었다. 지난해 귀순한 吳榮根소령등 1~2명이 망명해오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 여객기가 통째로 넘어오다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정신없이 신문사로달려나가 호외발행을도운뒤 다음날 서울로향하는 비행기에 몸을실었다. 서울이 가까와질수록 마음이 깊은늪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쉐라톤 워커힐에서 직접 탑승객을 본 순간 허망감이 온몸을타고 흘렀다. 그들은 이미 어릴때부터 늘상 들어온「대륙인」이 아니었다. 옷차림·표정·몸짓등은 상상해왔던 중국인이 아니었고 먼나라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승객들이 대만기자를 특별히 기피할때는 더욱더 그러했고 눈시울마저 뜨거워졌다.

『34년간의장벽이 이렇게 큰것인가』하고 느끼는 순간 자신이 중국현대사의 비극의현장에 서있음을 깨달았다. 「비극」을 재삼 확인하는것이 내키지않아 호텔을 떠나는 승객들과 제대로 말 한마디 건네지못했다.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그는 기자직업을 가진 것을 처음으로 회의해 보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金宗來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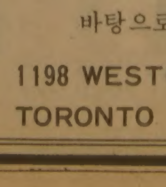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운전학교
PRINCIPAL DRIVING SCHOOL
* LEARN DEFENSIVE DRIVING *
●이론과 실기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빠르게 습득하도록 지도함.
CPDEA MEMBER
☎ 221-7783. 789-16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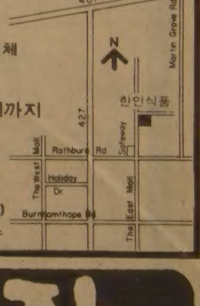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한국 가구의 전당
KIM'S ART GALLERY

◎옥돌가구
◎한국고전가구
◎동양화
◎액자


◎나전칠기 제작·수리
◎맞춤전문
OPENING HOURS
MON-FRI: 10:00-9:00
SAT: 10:00-6:00
교민을 위한 본 한국인의 가구공장에서는 언제나 최대의 신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읍니 김석환올림
1198 WESTON RD. TORONTO TEL : 247-3226
1286 WESTON RD. TORONTO TEL : 243-0233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해태 홈런砲, OB 焦土化

프로야구 무려 6개爆發… 홈球場서 7연승 12-2

MBC 李鍾道홈런 三美제압 2-1
三星도 4개퍼부어 롯데連破 4-1

光州에 홈런소나기가 쏟아졌다。 입발강타를 자랑하는 해태타선은 7일 지난해 챔피언 OB와의 대전서 4번 金奉淵의 3·6회말 솔로호머, 6번 金鍾模의 2회말 솔로·8회말 2점 홈런, 1번 金一權의 4회말 3점 홈런, 2번 徐定煥의 8회말 솔로홈런등 6개의 홈런을 포함한 15안타를 터뜨려 12-2로 대승, 10승1무5패로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해태는 이날 4회말 金一權의 3점호머로 가장먼저 팀 통산1백호 홈런을 돌파하고 1백3개째를 기록했다。 해태가 날린 6개의 홈런과 이경기서 기록된 7개의 홈런은 모두 지난해 7월10일 三星-三美전에서 기록된 한팀(삼성) 최다홈런및 한경기 최다홈런과 같은기록이다。

해태는 이날승리로 금년시즌들어 홈구장서7연승, 지난시즌 성적을 포함하면 11연승을 기록했다。

에이스투수 朴哲淳이 고장난「투수왕국」OB의 마운드는 처참했다。

1회말 2안타로 2死1·3루의 큰고비를넘긴 선발朴相悅은 2회말 해태선두 6번金鍾模에게 좌월솔로호머를 맞아 휘청거리기 시작, 3회말에는 4번 金奉淵에게 좌중월 솔로호머, 4회말에는 1번 金一權에게 3점호머를 맞고 K.O됐다。

5회부터 구원 역투하던 鄭善와도 6회말 金奉淵의 두번째 홈런등 2안타1포볼 1실책으로 3점을잃었다。 게임을 포기한 OB의 마지막 구원투수 金賢洪도 7회말 안타와 포볼등으로 1점을잃고 8회말에는 徐定煥에게 솔로, 金鍾模에게 투런호머를 맞았다。

해태의 선발로 등판한 金勇男은 5회초 OB8번 鄭宗鉉에게 좌중월 솔로호머로 1점, 9회초 6번朴鍾勳에게 우중월 3루타로 1점을 잃었으나 9회동안 35타자를 산발9안타 2실점으로막아 총7게임 등판에서 3승1패, 방어율 2·47을 기록했다。

MBC는 이날 잠실홈구장서 三美와 12회 연장전 끝에 12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4번 李鍾道가 三美투수任昊均의 제4구를 좌측담장으로 넘겨 2-1로 신승했다。

釜山경기서는 원정팀 三星이 1회초 2번 千普成, 6회초 1번 張泰洙, 7회초 朴承昊, 9회초 9번 金瑾錫이 날린 4개의 솔로홈런에 힘입어 4-1로승리했다。

◇7일전적

◆광주

OB	000	010	001	— 2
해태	011	303	13×	— 12

▲홈런=鄭宗鉉(5회·OB) 金鍾模(2·8회·2점) 金奉淵(3·6회) 金一權(4회·3점) 徐定煥(8회)

◆서울

삼미	000	001	000	000	— 1
MBC	000	010	000	001	— 2

▲홈런=李鍾道(12회·MBC)

◆부산

삼성	100	001	101	— 4
롯데	001	000	000	— 1

▲홈런=千普成(1회) 張泰洙(6회) 朴承昊(7회) 金瑾錫(9회·이상 삼성)

◇중간 순위(7일현재)

	팀	승	무	패
①	해태	10	1	5
②	삼미	11	0	8
③	OB	10	0	10
③	MBC	11	0	11
⑤	삼성	8	1	11
⑥	롯데	8	0	13

全大統領참관 선수격려
어제 중앙행정기관대항 體育大會

全斗煥대통령은 7일 하오 建國大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대통령배쟁탈 중앙행정기관대항 공무원 체육대회를참관하고선수및관계자들을 격려했다。〈사진〉

全大統領은 이날 본부석에서 金相浹국무총리및 金俊成부총리및 관계장관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 달리기, 배구등 각종경기를 약45분간 관람한뒤 이어 建大총장실에들러 權彝赫총장, 설립자부인 金桂玉여사 그리고 金총리를비롯한 관계장관들과 잠시 환담했다。

全大統領은 이자리에서 「24시간 일에시달린 공무원들이 이같은 운동회를갖는것은 정신과 육체의 신진대사에도 좋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할것」이라고말했다。

조달청 綜合우승

조달청은 7일 건국대구장에서열린 제1회 대통령배쟁탈 중앙행정기관대항 공무원 체육대회서 종합우승, 농어진흥청은 준우승, 3위는문공부가차지했다。 종목별로는 배구에서 기획원이, 테니스는 문교부가, 1백m달리기는 체육부가 각각1위를차지했다。

世界탁구 朴利熙·金浣과 3회전올라
金琦澤, 와다나베 完破
梁英子·安海淑·申得花도

【東京=李廷元특파원】1회전서 중공의 강호 세·사이·커를 꺾은 金琦澤이 일본의 와다나베도 3-0으로 완파, 朴利熙 金浣등과 함께 3회전에 오르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金琦澤은 7일벌어진 37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자개인 단식2회전에서 와다나베를, 朴利熙는 자모·조키넨(핀란드)을 각각 3-0으로 간단히 요리했으며 金浣도 나이지리아의 아탄다·무사에 첫세트를 16-21로 내주고 2세트부터 여유있는 플레이를펼친끝에 3-1로 역전승을거두었다。

그러나 安宰亨은 스웨덴의 벵트손과 풀세트접전끝에 2-3으로 분패, 한국남자팀은 4명중3명이 3회전에 진출했다。

여자단식 2회전에서도 한국은 4명의선수중 梁英子 安海淑 申得花가 각각 3-0으로 쾌승, 3회전에 올랐으며 尹璟美만이 일본의 신뽀에1-3으로 패했다。 또한 여자복식 2회전에서는 梁英子·尹璟美조와 李美雨·申得花조가 모두승리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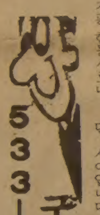
◇개인전 전적

▲남자단식2회전
朴利熙 3-0 자모·조키넨(핀란드)
벵트손(스웨덴) 3-2 安宰亨
金浣 3-1 아탄다·무사(나이지리아)
金琦澤 3-0 와다나베(일본)

▲여자단식2회전
梁英子 3-0 호시노(일본)
신뽀(일본) 3-1 尹璟美
安海淑 3-0 도론코스(캐나다)
申得花 3-0 맘버그(핀란드)

▲남자복식2회전
王會元·楊玉華(중공) 3-2 金琦澤·金浣

▲여자복식2회전
梁英子·尹璟美 3-0 하르·미미완(말레이지아)
李美雨·申得花 3-0 스자코·포니악(폴란드)


구독신청은 533-2361

이스라엘, "安保事項명시" 조건
「슐츠 撤軍案」수락
2개월內에 완전撤收

【예루살렘UPI AP=聯合】이스라엘 정부는 6일 비상각의를 열고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이 마련한 레바논주둔외국군철수안을 마지못해『원칙적』으로 수락했으나 몇가지 정치적 안보적 사항을『명확히 할것』을 미측에 요구했다。

아브라함·샤리트 이스라엘 관광상은 메나헴·베긴 수상의 주재아래 열린 이날 비상각의에서 이스라엘정부는 이른바 슐츠철군안을 수락하는조건으로 레바논 남부지역의 이스라엘 안보확립문제에 일부 정치문제들을『분명히 해주도록』협상주도국인 미국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협상당사국인 레바논은 슐츠철수안을 이미 수락한바 있다。

슐츠철군안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시리아군및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은 협정체결 2개월안으로 레바논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이들 3개국 군대가 레바논에서 철수하더라도 레바논평화정착을위해서는 親이스라엘 하다드민병대의 거취와 레바논내의 파벌분쟁등이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정부는 아리엘·샤론무임소장관을 포함한 외유중인 각료 5명을 긴급 소환한가운데열린 비상각의에서 6시간30분간에걸친 마라톤회의끝에 군정보기관들이 사전에 심의한 이철군협정초안을 17대 2로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撤軍閣議마친 베긴首相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이 제안한 레바논 철군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閣議를 주재하고 나와 차에 올라타는 베긴수상⑮ 【예루살렘6日AP聯合=聯合】

美, 비자發給절차 強化
戰略기술 對蘇流出 방지

【워싱턴UPI聯合=聯合】미국은 컴퓨터, 핵무기등 고도전략기술의 對蘇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입국사증) 발급절차를 엄격히 강화, 미국내에서 고도기술의 불법취득을 획책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대해서는 비자발급을 거부할것이라고 6일 윌리엄·슈나이더 美국무성 안보·과학·기술담당차관이 밝혔다。

슈나이더차관은 방공체제로부터 유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군비개선에 도움을준 미국기술이 불법적으로 대량 유출된것은 과거의 허술한 비자심사절차에도 큰원인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땅끝에서 오다 <52>
金成一 作 宋龍 畵

어둠속의 證人 ⑧

준호는 피곤하며 충혈된 눈을 번쩍 뜨며 형사를 바라보았다。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피살자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는 문 영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임이 드러났읍니다』

『어떤관계입니까?』

『피살자 이름은 박용식(朴龍植), 이십칠세。 그는 무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동의 강남(江南)카바레를 거점으로 부녀자들을 유혹한후 금품을 갈취하는 전문직 제비족으로 밝혀졌읍니다』

순간, 준호는 갑자기 눈 앞이 아득하여지는 것을 느꼈다。 제비족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불결한 놈이 문 영실의 아파트에서 살해되었단 말인가。 준호는 그렇지 않아도 저녁을 굶은 빈 속이 더욱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형사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그 제비족이란 녀석이 문 영실과 어떤 관계라도 있단 말씀입니까?』

형사는 연민의 시선으로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떡이고 있었다。

『피살자 박용식은 본래 해외취업기술자의 부인을 전문적으로 유혹하는 제비였읍니다。 문영실은 이미 몇몇 호텔과 여관에서 박용식과 관계를 맺은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는 그녀의 아파트에까지 박용식을 끌어들여 정사를 가졌었읍니다。 박용식은 이 사실을 미끼로 문영실을 협박하여 상당한 금액을 갈취한 것도 드러났읍니다』

준호는 갑자기 빈 속으로부터 심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오르는것을 억지로 참고있었다。

『그녀는…문 영실은 그 사실을 시인했읍니까?』

『그렇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이다。 그럴수가 없다。 그것은 저 문영실을 모독하는 것이다。 뭔가 문영실은 함정에 걸려있는것이다。 덫에 걸려있는것이다。 제비족 박용식이 돈을 내라고 여자를 협박했다。

여자는 마침내 견딜수 없어서 그를 찔렀다。 그런 논리에 걸려든 것이었다。

『선생님』

준호는 부르짖듯이 형사에게 말했다。 형사는 싸늘한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영실에게 그사내에 대해서 물어보셨읍니까? 그녀에게 전화를 걸으라고 명령했던 그 사내에 대해서』

『문영실은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읍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읍니다。 문영실을 만나게해주십쇼。 그사내를 제가찾아내겠읍니다。 어둠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최후의 증인…문영실의 불행을 비웃고있는 그건방진 말투의 사내를 제가 꼭 찾아내고야 말겠읍니다!』

형사는 묵묵히 담배연기만을 내뿜고 있었다。 준호는 못참겠다는듯 그에게 와락 달려들어 그손을 붙잡아서 흔들고 있었다。

『제발…부탁입니다』

張吉山 <1735>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5)

『내가 본 바로는 그런 책이란 별로 쓸데가 없는듯 합니다。 그보다 지난번 동안거 때에 우리 계에는 해서 강영이 맡겨지지 않고 막바로 송도에 집결하였다가 같은 날짜에 한양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전갈을 받았을 뿐입니다。 헌데 해서의 민병이 모아지려면 아무리 적어도 이 삼천은 되어야 할터인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한양까지 간단 말입니까?』

『젊고 팔팔한 장정들로 삼백에서 오백인만 모아도 됩니다』

황회가 말하였다。

『장길산 할빈도가 자비령을 떠나 철원에서 집결한 승군 오백여명이 대기하고 금화에서 집결하여 그들과 철원에서 합류하여 남하할 것입니다』

전성달은 그가 삭녕에서 받았던 강말득의 전갈을 다시 알렸고, 여환이 말하였다。

『천불산쪽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한양 도성이 먼저 점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나면 각처의 승병과 민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서에서도 대를 나누어 일대가 먼저 근기로 잠행하여 오고, 나머지는 감영을 도모하도록 합니다。 송도에서도 일단 한양 번복이 되고나면 거병이 있을 것이며, 관북과 삼남은 맨 나중에 쪽은 일단 남한산성이 떨어지면 막아낼 수가 있읍니다。 산성에는 이미 유점사 있던 일여(一如)라는 우리 도반 승려가 가 있고 묘정도 곧 그리로 옮길 것이며 풍열 큰스님은 가평 현등사로 내려가 계시다가, 이 모든 일을 통괄할 것입니다。 철원으로 집결하는 오백 승병을 통솔하는 이는 대성법주입니다。 장길산 할빈도는 비록 백여명에 지나지 않으나 모두 단병 접전에 뛰어난 일당 백의 녹림당들이오』

오계손이 다시 물었다。

『좋습니다。 우리 계가 송도까지 가서 집결할 핑계는 많지요。 무엇보다 산제를 지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양에서는 어찌할 작정이오?』

여환이 오계손의 물음에 답하기 전에 그의 계원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계손은 곧 눈치를 채고는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어제 스님께 소개하였듯이 재령 문화의 우리 계원들이고, 전에 구월산의 마두령이나 오두령과도 잘알던 사이입니다。 이들은 저와함께 계원들을 이끌고 상경할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렇다면… 양주에서는 일단 대를 나누어 한양 점령과 동시에 주목을 들이치게 되어 있읍니다。 한양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등 뒤가 되는 양주목이 먼저 점령되지 않으면 임진강 북로가 모두 끊기기 때문입니다。 도성의 북문과 가장 유리하니 협산과 협곡으로 인적이 끊겨있으며 백악과 인왕의 줄기를 타고 그대로 도성에 들어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성 안에는 이미 살주계의 내응 세력과 검계가 요소마다 깔려 혁명군이 들어오기만 기다릴 것이오。 해서 군사는 파주로부터 연결을 받아 그대로 오르면서 혜음령의 살주계와 합대하고 그들의 안내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海外토픽
유아배앓이 原因

★乳母가 우유마시면

유아의 배앓이를 치유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유모가 단백질이 함유되있는 우유를 마시지않는 것이라고 스웨덴의 소아과의사 2명이 주장했다。

이 의사들은 모유를 먹으면서 배앓이를 하는 유아 66명을 조사한 결과 아기어머니가 우유마시기를 끊자 53명이 3일만에 배앓이가 나았으며 다시 어머니가 우유를 마시자 아이들이 배앓이를 했다고 발표。【PTI】

★레이건 合法銃器소지 보호
現關係法개정강조

레이건대통령은 6일『美정부가 공포와 해악으로부터 스스로와 가족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미국인도 무장해제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2년전 힌클리로부터 총격을 받고 부상한 경험이 있는 레이건대통령은 피닉스에서 열린 美총기소지자협회모임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합법적인 총기소지자의 권리를 쓸데없이 침해』하는 현총기소지관계법이 바뀌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AP】

무료입장 아침10시~하오1시

13가지의 행운 개장첫날에 있다

온타리오 플레이스는 13번째의 시즌을 맞아 5월14일(토) 개장한다.
미신일랑 집어치우고 럭키 13이란 숫자에 기대를 거시라!

1 하오1시 전에 오면 무료입장. 문은 상오10시에 연다.

2 그날 광대와 동물인형들이 13,000개의 기념핀과 1,300개의 디스카버·핀, 1,300개의 포스터와 풍선, 또 식사권을 나눠준다.

3 또 다음 곳의 무료입장권을 주니까 기대하시라. 온타리오플레이스, CN타워, 아프리카 라이온스·사파리, 메트로·주(동물원), 보트·투어·인터내셔널, 블랙·크릭·파이어니어·빌리지, 카사·로마, 어린랜드, 온타리오·사이언스·센터.

4 상오10시15분 브리갠틴·독(선착장)에서 13발의 축포가 터지고, 1,300개의 풍선이 날면 온타리오·플레이스는 정식 개장한다.
투벤·베즈 관광장관이 83년 미스·캐나다 조디·롯디지양, 아고넛 풋볼팀의 쿼터백 콘드리지·할러웨이와 함께 식을 주재한다.

5 보트에 관심이 많으면 토론토항구의 소방선 윌엄·맥킨지호의 수상쇼를 볼것. 캐네디안 구축함 하이다호를 관람하고 어린이들이 미니·보트를 조종하도록 해주실 것.

6 올 여름에는 370피트 길이의 워터·스라이드(물미끄럼)을 타고 〈재미있는 터널〉을 통과하고 재미를 맛보시라. 미니골프를 치고, 페들·보트도 타며, 범퍼·보트로 부딪치는 놀이도 즐기실 것.

7 어린이들은(뱃속 어린이 포함) 세계적으로 유명한 칠드런스·빌리지로 데려오십시요. 그곳에는 달밤의 산책등 많은 재미가 있다.

8 문명이 에그린턴·에비뉴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는 웨스트·아일랜드를 보지 못한 분이다.
온타리오북부지역을 보여주는 9개 전시관은 그곳의 놀라운 모습을 잘 보여 줄 것이다.

9 고도의 기술로 장래의 세계를 말해주는 휴처·팟(Future Pod)에 들어가면 내일을 알 수 있다.

10 올은 여름정원은 웨스트·아일랜드·빌리지에서 맥시코밴드의 주악으로 개장한다.
5월15일(일) 하오1시~2시30분에는 라틴·휘버, 40개의 밴드, 콘테이져스 악단은 하오1시~2시30분에 연주한다.

11 시네스웨어(영화관)도 문을 연다. 6층 높이의 스크린은 "Nomads of the Deep"을 5월12일~15일 상오10시30분~하오4시 사이에 상영한다.
"North of Superior"을 5월12일~15일, 하오4시30분~9시30분, "Catch the Sun"은 5월16일~22일 상오 10시30분~하오4시, "Silent Sky"는 5월16일~22일 하오4시~9시30분에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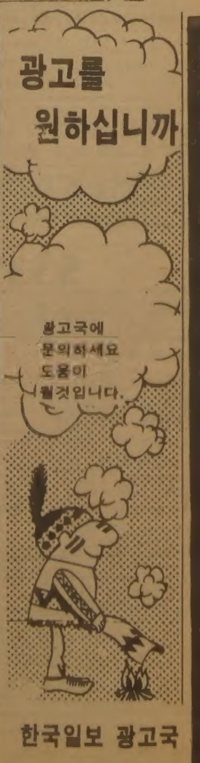
12 하오6시30분 「욕」수비대의 일몰의식을 보시라. 그것은 일과의 끝을 고하거나 저녁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의식이다.

13 포럼(Forum)에도 많은 프로가 있다.
토론토에서 가장 가치있는 연예프로다! Freds Folk 13일(금) 8:30 PM, Frank Mills 14일(토) 3~8:30 PM, Bobby Vinton 15일 3~8:30 PM, Pure Prairie League 16일(월) 8시30 PM, Roy Orbison 17일(화) 8:30 PM, Willie Dixon, Chicago Blues All Stars, Downchild Blues Band 18일(수) 8:30 PM, Bob McBride 19일(목) 8:00 PM. 같은날 9시 원타리오 추첨이 있다. (19일 추첨 원타리오 복권을 가진 분은 하오7시이후에는 무료입장)

ontario place
955 Lakeshore Blvd. West, Toronto, Ontario, Canada M6K 3B9 (416) 965-7711.
A Crown Corporation of the Government of Ontario. Ministry of Tourism and Recreation, Hon. Reuben C. Baetz, Minister.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술면허를 취득했읍니다.
□맥주 □청종·와인등
〈지역에 따라 주문 배달합니다〉
☎537-0432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광고를 원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
☎ : 533-2361
토요일도 접수합니다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섬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핀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핀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회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디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불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병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파트타임 직원급모 (1)Receptionist: 영어와 한국말로 전화를 받을수 있으며, 영문타자를 빨리 칠 수 있는 용모단정한 사람.
(2)식당종업원: 토요일저녁(6시-10시) 간이식당서 일할 분(연령불문)
◉문의나 신청은 West End YMCA(931 College St.)
Mr.Kim이나 Jackie. 536-1166

급히 가게매니저 구합
월수입 $4,000이상 보장
전화 : 1-560-6400 해밀톤

카페테리아에서 일할 홀타임, 혹은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직접 내방요 (오후2시~5시사이)
96 Spadina Ave. (At Adelaide)

◆급구◆ 파트타임 가게헬퍼. 운전할 수 있고 West쪽에 살고있는 남자학생을 원함.
전화 : 622-8516.

입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기보아 주실분 구함.
전화 : B)839-8438, R)282-6223.

주방헬퍼구함.
경험자우대. 몬트리얼지역.
"회의 집" 전화 : 1-(514)-861-6128.

Store Helper 구함.
경험있는 여자분에 한함. little bit of coffee work
Downtown지역. 전화: 368-8834 (오전11시이후)

도너츠숍에서 일하실 주말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스토아 헬퍼 구함.
7일간 홀타임. 남자원함.
전화 : B)466-3995.

Full Time Helper 구함.
젊은 남자분.
전화 : 763-2980, 762-1572, R)769-9854.

경험있는 캐쉬어 여학생 구함.
파트타임(오후5시~10시). 단 토·일요일은 홀타임.
전화 : 621-4121 Mrs. 정. 서쪽 지역.

재봉사구함.
여자옷종류 재봉할 수 있는 분.
전화 : 366-3227.

파트타임 Store 헬퍼구함
전화 : 488-1634

파트타임·헬퍼 구함.
Partime helper wanted at Country Style Donut Shop.
Located at Keel and Just South of Finch.
Common english communication needed.
Anyone who is interested please
Call 630-9413 ask for Mr. Yun

재봉사 구함.
숙녀복및 양복 수선 할 수 있고,
꼭 경험이 있어야함.
피스 워크
좋은 베니피트 보장
★희망자는 IRVIN POSLUNS을 면담.
DYLEX. 3RD. FLOOR
637 LAKESHORE BLVD. WEST.
전화 : 591-7054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매 매

성업중인 마켓 건강상 팝니다.
토론토에서 Beach Area.
주매상 $7,000. 여름철엔 $13,000
2038 QUEEN ST. E.
전화 : 690-6572 (경마장 동쪽-I.G.A.옆)

Becker's 후렌차이스 Store 매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직접 내방 요망.

카사로마 미장원 매매
3개룸및 부엌 포함
전화 : 921-5947 Mr. Gus

---

1)새로 차린 자그마한 도낫 커피 아스크림숍 $1만9천 Rent 600
2)월세 $600 가게 800 SQFT. Queen Greenwood 이층 Apt.도 세놓음
3)Wellesley & Parliament dry cleaning Depot $24,000 연매상 $60,000 수선은 별도수입
4)Driving Restaurant 401. Missi Rd. 희랍인이 차린집 1년 56석 주류허가 14년리스 12만5천불
5)Driving Restaurant 401 Pickering 44석. 주류허가 통닭전문집 다른 업종변경도 가능함. $17만5천(외국인4년 경영하고 있음)
6)Scar Centenial Hospital 근처 3 Bed Town House 뒤가 남앙바지에 그린벨트가 있음. 5만7천9백
7)West Hill Side Split 15만5천 주인이 은퇴함 8년이 됐고 다 구[illegible] 지하실에 벽돌이 [illegible]
8)Bloor & Dovercourt 2층 벽돌 새로개조한집 12만7천불
9)하이웨이 No.7 우드바인 1에이커 땅에 벽돌집 꽃과 나무와 잔디. 주인 은퇴함. $8만 down
Royal Trust Co 전화 : B)752-3111 R)298-0398 곽석용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illegible], 시 [illegible] 10주.
낮은 Rent, 리스좋음. Asking $27,000.
타사업관계로 매매코저함. 전화 : 466-9864(AM10시-11시)

좋은 위치에 계속 성업중인 중국식당 매매
Full License. 전화 : 654-6609
538 St.Clair Ave. W.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주매상 $7,500. 리스 5년반 + 5년옵션.
꼭 사실분만 문의바람. 전화 : 746-0272.

Dry Cleaners(Depot)매매.
주매상$850. Rent$350. Asking$23,000.
전화 : 531-5664.

그로써리 Store 매매. 주매상 $7,000($10,000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전화 : 1-852-7907

피자식당(L.L.B.O)과 옆에 붙어있는 서브마린식당 매매 원함.
리스 8년+10년 옵션. 40석.
두 식당을 한꺼번에 사실분 연락요망.
직접 내방요망.
1166 Morningside Ave. (Sheppard지역)
Mrs. Kim 전화 : 281-8218

Private Sale. 버라이어디 가게
주매상 $8,500이상. Extra Income $2,500이상/M
(Lotto+Game). Cash Deal.
16 Hansen Road North. Brampton.
(오전10시부터 12시 사이에만 문의요망)
전화 : 457-7071

FRUIT MARKET 급매.
연수입 $2만보장. (켄싱톤 MARKET & SPADINA)
Asking $4만. 전화:977-6347, 591-9378 Mr. Lai.

Show Case 4ft & 6ft(기타 여러종류)
Magazine Rack 급매.
전화 : 757-8323, 759-6445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가게 급매
주6일 영업. 주매상 4천불. Lotterio+Video기계있음.
Asking 3만불+스탁. 714 Scarlett Rd.

Donut Shop 매매 Asking: $159,000
$80,000 down or $140,000 cash
전화 : 447-6129 call after 9pm ask for Nick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6,500 + 로타리오 머쉰있음.
전화 : 977-0578. Mr. William(K.SEE REALTY INC)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주매상: $6,000 아스킹: $61000 리스: 5년($650)+5년($750)
현재 $580 (in Plaza) 1-528-3986 Mr. Lee

햄버거 레스트랑 매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Oshawa Downtown Shopping Mall안에 있음. Shoe repair Shop. 4월1일부터 Open했음. 매매.
관심있으신분은 291-8367로 전화연락바람(아침10시 부터 오후3시)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Dairy Case 싼값으로 매매
전화 : 487-9792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챠챠,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춘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마끼지 않고 직접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 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충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춘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덴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

내일로 공연박두!

안보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웃음」과 「노래」잔치

「잊혀진 계절」의…이 용
「아직도 그대…」… 이은하
메들리女王……… 김연자
그룹 사운드…… 호랑나비

이주일의 뮤지컬 코미디
1幕 …………「탈선 춘향전」
2幕 「바보아이들과구두쇠…」
3幕 ….최신 디스코發表등

모국연예인 초청 쇼

한인민족상 기금모금

일시 • 1983년5월13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 토론토대학 콘보케이션홀
(칼리지×세인트 • 죠지) Kings College Circle
입장권예매처(A석 $15, B석 $12, C석 $10)
한국각식품점, 한국관, 동궁, 아리랑하우스, 남강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

☞A석 매진 ☞B석 C석 판매중 표는 빨리 구입하십시요 ■지정좌석제 ■10세미만 어린이 동반금지 ■카메라 • 비데오 촬영금지 ■카셑 녹음금지 ■주변에 충분한 파킹장